



#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2021.12.





#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1
제2장 문헌 연구 .....	2
1. 기존 국내 설문 조사 .....	2
제3장 기초 통계 분석 .....	5
1. 설문조사 개요 .....	5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
제4장 계량적 분석 .....	72
1. 분석 개요 .....	72
2. 상관관계 분석 .....	72
3. 기업 규모별 분석 .....	73
4. 업종별 분석 .....	78
5. 군집화를 통한 기업 특성 분류 .....	79
제5장 정성적 분석 .....	80
1. 시사점 도출 및 제언 .....	80
참고문헌 .....	84
부록. 통계 분석 관련 자료 .....	85

## 표 차례

<표 1> 회사 규모별 구분 .....	5
<표 2> 직급별 구분 .....	6
<표 3> 업종별 구분 .....	6
<표 4> 0-1.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7
<표 5> 0-2. ESG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8
<표 6> 0-3.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표 7> 0-3-1. 만약 중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8
<표 8> 0-3-2. 만약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표 9>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SG 전반 .....	12
<표 10>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환경) .....	12
<표 11>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S(사회) .....	13
<표 12>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G(지배구조) .....	13
<표 13> 0-5.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14
<표 14>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추가상승 .....	14
<표 15>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매출확대 .....	14
<표 16>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이익률 개선 .....	15
<표 17>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임직원 생산성 증진 .....	15
<표 18>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자금조달 비용 축소 .....	15
<표 19>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사회 요구 .....	19
<표 20>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영자 요구 .....	19
<표 21>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부 임직원 요구 .....	19
<표 22>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투자기관 요구 .....	20
<표 23>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기관의 요구(ex. 은행 등) .....	20
<표 24>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 소비자 요구 .....	20
<표 25>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쟁기업의 ESG 활동 .....	21
<표 26>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 요구 .....	21
<표 27>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 요구 .....	21
<표 28>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내외 주요 언론사 확산 .....	22
<표 29>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글로벌 ESG 관련 규제 .....	22
<표 30>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 .....	22
<표 31>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협회, 연합, 포럼 등 관련 단체 .....	23
<표 32> 1-2 ESG 관련 귀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24
<표 33>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사업 관련 리스크 선제적 대응 .....	25
<표 34>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장기적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 .....	25

.....	25
<표 35>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25
.....	25
<표 36>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기업의 사업운영 역량강화에 도움	26
<표 37>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자금조달 개선, 세제감면 등 경제적 혜택 확보	26
<표 38>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국내외 ESG 평가대응력 향상	26
.....	26
<표 39>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기업 평판 향상(Ex. 명성, 이미 지 등)	27
<표 40>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27
.....	27
<표 41> 2-1. 귀사의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0
<표 42> 2-2. 귀사 내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31
<표 43> 2-3. 귀사는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임원(Ex. CSO 등)을 두고 있습니까?	31
<표 44> 2-4. 귀사는 (별도의)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까?	31
<표 45> 2-5. 귀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ESG 경영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2
<표 46> 2-6. ESG경영은 크게 리스크 관리와 기회 창출이라는 양측면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둘 중 보다 중 점을 두는 측면은 어느 것입니까?	34
<표 47> 2-7. 귀사는 ESG 활동과 성과를 KPI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35
<표 48>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평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5
<표 49>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6
.....	36
<표 50>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전략 및 이행계획 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6
.....	36
<표 51>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투자기관 및 고객사 등 ESG 요청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6
<표 52>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현업부서 ESG 관련 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7
<표 53>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7
<표 54> 2-8. 이 외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가 수행하는 [기타] 업무가 있습니까?	37
<표 55> 2-10. 귀사의 대외 ESG 평가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사업 기회 창출 및 확대)은 어느 정도입 니까?	38
<표 56> 2-11. 귀사는 대외 ESG 평가대응 결과(Ex. 평가등급, 평가점 등)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은 적 (경험)이 있습니까?	38
<표 57> 2-12. 귀사는 대외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떠한 현안이슈가 있습니까?	39
<표 58> 2-13. 귀사는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협력사)과 ESG 성과개선 협력'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표 59> 2-14. 금년 2월에 EU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due diligence)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공급망 (협력사) ESG 실사 의무화 움직임에 대한 귀사의 대응 수준은 어떠합니까?	41
<표 60> 2-14-1. 귀사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표 61> 2-14-2. 귀사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준비하지 않거나, 준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42
<표 62> 2-14-3. 귀사는 공급망 리스크 중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2
<표 63> 3-1.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 해 주십시오.(1, 2, 3) .....	44
<표 64>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환경(E) .....	44
<표 65>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S) .....	45
<표 66>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배구조(G) .....	45
<표 67> 3-2. 아래의 환경(E)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 십시오.(1, 2, 3, 4, 5) .....	46
<표 68>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배출량 감축 .....	47
<표 69>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환경오염물질 저감 .....	47
<표 70>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	47
<표 71>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	48
<표 72> 3-3. 아래의 사회(S)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 십시오.(1, 2, 3, 4, 5) .....	49
<표 73>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	50
<표 74>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 .....	50
<표 75>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 기여 (Ex. 사회공헌 등) .....	50
<표 76>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 .....	51
<표 77> 3-4. 아래의 지배구조(G)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 해 주십시오.(1, 2, 3, 4, 5) .....	52
<표 78>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주주권리 보호 .....	53
<표 79>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	53
<표 80>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	53
<표 81>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배당정책 강화 .....	54
<표 82> 3-5.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탈석탄 패러다임 등 기후변화 아젠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ESG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54
<표 83> 3-6. 귀사가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55
<표 84>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컨설팅 등 외부 전문가 자문 획득 .....	55
<표 85>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동종산업 벤치마킹 .....	56
<표 86>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ESG 관 련 외부교육 수강 .....	56
<표 87>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정부 ESG 지원제도 신청 .....	56
<표 88>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	57
<표 89>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관련 역량강화 위한 교육 확산 .....	57
<표 90>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	58
<표 91>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평가 지표 및 기준 통합 .....	58
<표 92>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	58
<표 93>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도입 및 실천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 .....	59
<표 94>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	59
<표 95>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	60
<표 96>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	60
<표 97>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인증 및 홍보 .....	60
<표 98> 4.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5
<표 99> 4-1.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5
<표 100> 4-2.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6
<표 101> 4-3. ESG 정보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66
<표 102> 4-4. ESG 정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6
<표 103> 4-5. ESG 정보공개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7
<표 104> 4-6. ESG 정보공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7
<표 105> 4-7. ESG 정보공개 활성화에 있어 장애요인(Hurdle)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8
<표 106> 4-8.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8
<표 107> 4-9.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제도화될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	68
<표 108> 4-10. 귀사의 경우 경영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 ESG 경영 활동 시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공시기준은 무엇입니까? .....	69
<표 109> 4-10-1. 상기에서 선택한 공시기준을 선호하는 이유는? .....	69

# 요약문

본 연구는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ESG 정책개발, 지원방안 마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기존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인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부산상공회의소의 자료인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재 발간된 20 여권의 도서와 자본시장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발간된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였음. 기초 통계 분석의 경우, 정제된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 특성, 기본설문 항목, ESG 경영 도입, ESG 경영 현황, ESG 우선순위 및 애로사항, ESG 정보공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기존 문헌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계량적 분석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클러스터링 기법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음. 추가적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국내기업의 ESG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중 특이점이 있는 문항들을 분석해냈고, 각 항목의 세부 응답 비율 및 평균값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나아가, ESG 이해관계자가 응답한 장애 요인 및 필요항목들을 분석하여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와 같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분석 과정을 통해서,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70.00%의 기업 담당자들이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ESG 개념에 대해서 31.70%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 중요도의 인식수준에 비해 지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자사의 ESG 경영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0%에 그침.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다수의 기업 담당자가 자사의 경영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ESG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1위가 주가 상승(전체 응답자의 47.67%가 ESG 경영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이었고, 2위가 매출 확대(전체 응답자의 39.33%가 ESG 경영이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였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익률 개선, 임직원 생산성 증진, 자금 조달 비용 축소 등의 항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으며, 실제 성과로 인식되는 과정이 간접적이거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ESG 경영이 조직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될 필요가 있음. 외부적 성과(주가 상승, 매출 상승 등)는 다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 임직원들의 통제력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적 성과(임직원



생산성 증진)는 그렇지 않음. 내부적 성과에 중점을 둔 ESG 관련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함.

- ESG 관련하여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자들의 50.33%가 “경영진 및 임직원의 인식 개선(ESG 추진 적극 참여)”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외부적 압력을 아직 내부적 이슈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경영진과 임직원들에 대한 인식 향상이 매우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됨.
- 통계조사 결과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1순위는 경제적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세제 혜택, 금융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ESG 경영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리스크 관리가 기회 창출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관리가 53.33%, 기회 창출이 46.6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현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향후 ESG 관련 다양한 접근의 방식이 기회 창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ESG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례가 필요하고 ESG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및 교육, ESG 연계 신사업 개발 워크숍 등 사내 벤처 육성과의 연계, ESG 연계 창업 커뮤니티/모임 등의 운영이 필요할 것임.
-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 중 40%가 ESG 평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함. ESG 평가대응 업무의 세부 항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3.00%)과 ‘ESG 성과 관리 업무’(30.66%)의 업무 수행 비율이 ‘현업부서 ESG 관련 업무 지원’(40.67%)과 ‘ESG 전략 및 이행계획 수행’(38.00%) 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을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SG 평가 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당면한 현안 이슈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고,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ESG 평가 방법론은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SG 평가 방법론의 개선 또는 대상 맞춤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또한, ESG 평가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개별 평가 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30.00%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표준화 또는 모듈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ESG 평가 정보와 관련되어 의무적 부분과 자발적/선택적 부분의 분리가 필요함.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 배경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경영의 필수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음. 기업에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등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음.
  - 다국적 및 글로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과 및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경제환경에서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경영의 필수사항으로 고려됨.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음.

## 2. 연구 목적

-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임. 기업의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설문 조사를 분석 및 검증하고자 하였음.
  - 기업의 ESG 경영 현황, 추진 장애 요인 결과 분석을 통한 ESG 정책개발, 지원방안 마련, 생태계 조성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이에 본 연구는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 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ESG 정책개발, 지원방안 마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2장 문헌 연구

### 1. 기존 국내 설문 조사

본 연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5월에 보도한 자료인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8월에 발표한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참고하였음.

<‘21.05,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일반 성인 국민 300명을 조사하였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주주 이익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51.0%였고, ‘주주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이익’은 39.7%, ‘주주의 이익극대화’ 9.0%, 그리고 ‘기타’ 0.3% 응답하였음.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제품 생산’ 32.3%, ‘일자리 창출’ 23.3%, ‘사회공헌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17.0%, ‘국가경제발전 기여’ 14.7%, ‘근로자 복지 향상’ 7.0%, ‘협력업체와의 상생’ 4.0%,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기여’ 1.7% 응답하였음.

또한,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63%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3%인 것으로 나타났음.

ESG 분야 중 기업이 가장 대응을 못 하는 분야를 지목한 응답자는 ‘지배구조’ 41.3%, ‘환경’ 35.0%, 그리고 ‘사회’ 23.7% 응답하였음.

ESG 분야별로 기업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이슈 중, 환경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과다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 36.7%, ‘기후변화 가속화’ 21.0%, ‘환경호르몬’ 19.7%, ‘미세먼지’ 15.0%, ‘지하수/수돗물 오염’ 3.3%, ‘각종 동식물 멸종’ 2.3%, ‘토지 내 중금속’ 1.7% 순으로 조사되었음.

사회 분야에서는 ‘일자리 부족’ 31.7%, ‘근로자 인권 및 안전’ 31.0%, ‘소득 양극화’

14.0%, ‘비정규직 문제’ 9.7%, ‘협력사 관계’ 7.0%, ‘전근대적 기업문화’ 6.3%, 그리고 ‘기타’ 0.3% 응답하였음.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36.3%,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32.7%, ‘일감 몰아주기’ 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 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 8.3%, 그리고 ‘기타’ 0.4% 응답하였음.

이에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 경영은 투자 유치, 매출 상승 등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문제발생을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 측면의 효과도 크다”라고 설명하였으며,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의 발달로 기업의 ESG 관련 이슈가 쉽게 대중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만큼 ESG 경영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함.

〈21.08,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는 부산지역의 상장사,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주요 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13.0%가 ESG 경영에 관심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소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0%, ‘다소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0%,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였음. 또한, 부산지역 기업이 ESG 중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는 환경에 71.0%, ‘사회’에 27.0%, ‘지배구조’에 2.0% 응답하였음.

ESG 경영전략 수립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수립했다’는 12.0%, ‘향후 수립할 계획’은 23.0%, 그리고 ‘계획이 없다’는 65.0%로 나타났음.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엔 시기상조’가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다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들은 ‘강제성이 없고 딱히 불이익이 없음’이 27.1%, ‘노력 대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음’이 23.5%, ‘일시적 경영 트렌드로 그칠 것으로 예상’이 17.6%로 뒤를 이었음.

반면,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의 주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36.7%, ‘환경 및 노동정책 강화 등 규제 부담’ 32.4%, ‘거래처(원청사, 글로벌 기업 등)로부터 ESG 경영 요구’ 19.1%, ‘해외나 기관 등으로부터 자사 투자 유치’ 11.8% 응답하였음.

ESG 관련 담당 조직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도 전담 조직 있음’ 37.1%, ‘없음’ 37.1%, ‘필요 시 담당 조직 구성’ 25.7% 응답하였음.

ESG 경영 도입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ESG 정보 부족(모호한 개념)’ 46.0%, ‘인적, 물적 자원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41.0%, ‘ESG 평가 지표의 통일성 부족(평가기관마다 상이)’ 9.0%, 그리고 ‘원청사의 무리한 ESG 도입 요구’ 4.0% 응답하였음.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ESG 경영이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향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경영 참여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또한, 각종 금융기관에서 ESG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기업의 ESG 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조달부문에서도 ESG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에 ESG 경영이 기업생존의 필수사항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 주도로 ESG 경영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하달식으로 ESG 경영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사의 ESG 컨설팅 및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협력모델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중장기적으로는 ESG를 리스크 해소 차원이 아닌 새로운 시장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거래처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예상하였음.

# 제3장 기초 통계 분석

## 1. 설문 조사 개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함.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로, 16일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음. 총 371명이 응답하였고, 이를 정제 후 300명의 결과를 취합할 수 있었음. 설문 응답 조건으로 회사가 속한 산업은 무관하나, 직급은 차장급 이상이고 경영관리, 재무, 인사, 법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회사의 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음.

설문 조사 문항들은 업무 내용과 ESG 개념에 대한 이해도 등을 묻는 ‘기본설문 항목’, ESG 경영 목적과 기대 효과를 묻는 ‘ESG 경영 도입’항목, 조직의 ESG 경영 내재화 및 준비 정도를 묻는 ‘ESG 경영 현황’ 항목, ESG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장애물을 묻는 ‘ESG 우선순위 및 애로사항’ 항목, 회사들이 선호하는 ESG 정보공개 방안을 찾기 위한 ‘ESG 정보공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음.

##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가. 조사대상자 특성

설문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 <표 2>, <표 3>과 같음. 회사 규모별 분포는 대기업 34.00%, 중견기업 39.00%, 중소기업 27.00%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직급별 분류에 따르면, ‘부장’직급이 응답자의 47.00%를 차지했으며, ‘임원/부사장’은 20.70%, ‘차장’은 18.30%, ‘사장’은 14.00%를 차지하였음. 응답 기업의 업종은 총 27개로 ‘IT/통신’이 가장 많았으며, ‘화학’, ‘소비재/제조/판매’, ‘금융’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반면, ‘연구/조사’, ‘상하수/환경’, ‘농림수산’ 업종의 비중은 작았음.

<표 1> 회사 규모별 구분

보기	백분율	응답
대기업	34.00%	102
중견기업	39.00%	117
중소기업	27.00%	81
합계	100.00%	300

〈표 2〉 직급별 구분

보기	백분율	응답
차장	18.30%	55
부장	47.00%	141
임원/부사장	20.70%	62
사장	14.00%	42
합계	100.00%	300

〈표 3〉 업종별 구분

업종별 구분	백분율	응답
IT/통신	12.00%	36
화학	7.70%	23
소비재/제조/판매	7.30%	22
금융	7.00%	21
유통/판매	6.00%	18
기계/장비	5.70%	17
자동차/조선/철도	5.00%	15
전자/통신/제조	5.00%	15
건설	4.70%	14
제약/바이오	4.70%	14
전문서비스	4.30%	13
부동산	4.00%	12
여객/운송/물류	4.00%	12
지주회사/본부	3.70%	11
그 외 기타	3.30%	10
금속/비금속	2.30%	7
생활/여가	2.30%	7
설계/엔지니어링	2.00%	6
미디어	1.70%	5
자문	1.70%	5
전력/연료	1.70%	5
전기/장비/제품	1.30%	4
기관/단체	1.00%	3
광고	0.70%	2
농림수산	0.30%	1
상하수/환경	0.30%	1
연구/조사	0.30%	1
합계	100.00%	300

## 나. 기본설문 항목

ESG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음. 응답자의 50%가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음.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21.00%,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10.70%를 차지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은 7.70%를 차지함.

<표 5>에 따르면, ESG 업무를 현재 혹은 과거에 담당한 응답자 비율은 11.66%(현재 7.33%, 과거, 4.33%)이며, 현재 ESG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응답자는 33.33%, 과거 ESG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던 응답자는 14.67%를 차지함. 반면, ESG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응답자는 40.00%에 달함.

실제 경영과 관련하여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음. ESG 중요성을 '다소 중요'와 '매우 중요'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각각 42.33%와 27.6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7로 응답자의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보여줌.

한편, ESG가 중요한 이유로는 '경영성과 긍정적 효과 발생'(42.86%)과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41.90%)로 보았음. 반면, ESG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경영성과와 연관성 낮음'(41.67%), '일시적 이슈 및 트렌드에 불과'(33.33%)로 꼽았음. 중요성에 대해 상반된 이견을 보인 두 그룹 모두 ESG와 관련된 경영성과와 트렌드에 주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

<표 4> 0-1.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Ex. ESG 업무를 직접 담당 또는 총괄)	10.70%	32
잘 알고 있다 (Ex. 업무 연관성이 높음)	21.00%	6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Ex. ESG의 기본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음)	50.00%	150
알지 못한다 (Ex. ESG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음)	10.70%	32
전혀 알지 못한다..	7.70%	23
합계	100.00%	300
평균	3.16	
표준편차	1.01	



〈표 5〉 0-2. ESG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업무와 관련이 없다.	40.00%	120
현재 ESG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하고 있다.	33.33%	100
과거에 ESG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원하였다	14.67%	44
현재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33%	22
과거에 ESG 업무를 담당하였다.	4.33%	13
관련 없음	0.33%	1
합계	100.00%	300

〈표 6〉 0-3.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중요	27.67%	83
다소 중요	42.33%	127
보통	22.00%	66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5.67%	17
전혀 중요하지 않음	2.33%	7
합계	100.00%	300
평균		3.87

〈표 7〉 0-3-1. 만약 중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경영성과 긍정적 효과 발생 (Ex. 글로벌 고객사 ESG 준수 요구 등)	42.86%	90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	41.90%	88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확대	11.43%	24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 및 만족도 증가	3.81%	8
합계	100.00%	210

〈표 8〉 0-3-2. 만약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경영성과와 연관성 낮음	41.67%	10
일시적 이슈 및 트렌드에 불과 (CSR, 투명윤리경영 등)	33.33%	8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 없음	12.50%	3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없음	12.50%	3
합계	100.00%	24

### 연구로부터 시사점

- ESG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40%에 달하지만, ESG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음. 더불어 실제 경영과 관련하여 ESG의 중요성을 '다소 중요'와 '매우 중요'와 같이 높게 평가하는 답변이 70%에 달했던 것을 기반으로 ESG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많은 인식과 공감을 얻었음을 알 수 있음.
-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로는 투자자의 요구 확대 같은 외부적 압박보다는 경영성과와 소비자 인식 제고와 같은 ESG 경영의 효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ESG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은 ESG 경영이 경영성과와 연관성이 낮고 일시적 이슈에 불과하다고 답하였음.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그룹들 모두 경영성과와 소비자 인식 및 트렌드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기존 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ESG 경영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상장사 41.8%, 비상장사 26.3%로 상장사가 ESG 경영에 관해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56.5%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ESG 공시 의무화 부담이 큰 기업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부산지역 기업 중 ESG 경영에 ‘관심이 높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13.0%, ‘다소 높음’ 20.0%, ‘보통’ 41.0%, ‘다소 낮음’ 17.0%, ‘매우 낮음’ 9.0%로 ESG가 기업의 경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관심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음. 또한, 부산은 ESG 평가에서 과반수 기업이 취약성을 나타내며, 주요 도시 중 서울, 대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광주, 부산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강성진 著 「ESG 제대로 이해하기」에서 전국 대학생 1,009명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조사결과, ‘귀하는 ESG 경영/투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학생의 24.0%만이 ESG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용어를 모두 들어보지 못했다는 비율 역시 10.7%에 달하였음. 또한, 72.7%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27.4%라는 긍정 응답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임. 또한 ‘상품 구매 시 모든 조건(가격 포함)이 동일할 때,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87.0%가 ‘예’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주식에 투자할 경우,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의 질문에 80.3%가 ‘예’라고 응답하였음.
- 문성훈 著 「부를 부르는 ESG」에서 한경 비즈니스가 Z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일으킨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참여하겠다’ 55.4%,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를 고른다’ 59.5%의 결과를 알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자료에서 국민 300명 중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3%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함.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88.3%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기연구원의「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중 경기도 2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에 따르면, ESG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3.2점으로 '필요하다'(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는 응답(30.5%)이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는 응답(14.6%)보다 두 배 정도 높았음.  
 또한, ESG 동향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한 55개 기업 중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개에 불과했으며, 준비 중(10개)이거나 준비할 계획(24개)인 기업은 34개였으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도 20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김영기 著 「ESG 경영」에서 한국경제신문, 입소스 사가 국내 소비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해당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받는다'에 82.8%, '기업평가 때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3%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4.3%)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46.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ESG 경영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5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에 33.3%, '필요하지 않다'에 6.3%,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2.4% 응답함.
- ※ 시사점: ESG 인식 및 이해와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ESG에 의해서 소비 행태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다만 ESG 투자 관련해서는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음.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과 각 항목에 대한 경영 현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다음 <표 9>, <표 10>, <표 11>, <표 12>와 같음. S(사회) 항목을

제외한 3개 질문(ESG 전반, E, G)에서 '보통'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음. ESG 전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경영 수준에 대한 각각의 평균은 2.93, 3.04, 3.15, 2.90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E(환경), S(사회) 분야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음에 비해 ESG 전반과 G(지배구조)의 경우, '보통 이하'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은 지배구조(G)를 중심으로 ESG 전반의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9〉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SG 전반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6.00%	18
다소 높다	23.00%	69
보통이다	40.33%	121
조금 낮다	19.00%	57
매우 낮다	11.67%	35
합계	100.00%	300
평균	2.93	
표준편차	1.06	

〈표 10〉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환경)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10.00%	30
다소 높다	24.67%	74
보통이다	35.33%	106
조금 낮다	19.00%	57
매우 낮다	11.00%	33
합계	100.00%	300
평균	3.04	
표준편차	1.13	

〈표 11〉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S(사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10.33%	31
다소 높다	31.33%	94
보통이다	31.00%	93
조금 낮다	17.33%	52
매우 낮다	10.00%	30
합계	100.00%	300
평균	3.15	
표준편차	1.13	

〈표 12〉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G(지배구조)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8.00%	24
다소 높다	21.67%	65
보통이다	36.67%	110
조금 낮다	20.00%	60
매우 낮다	13.67%	41
합계	100.00%	300
평균	2.90	
표준편차	1.13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다음 〈표 13〉에서 〈표 18〉과 같음. ‘보통이다’로 판단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42.00%), 전체 평균은 3.00을 기록함. 사업성과 항목에 따른 영향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주가 상승’(2.91), ‘매출 확대’(2.90), ‘이익률 개선’(2.58), ‘자금조달 비용 축소’(2.48), ‘기타’(1.95) 순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음.

〈표 13〉 0-5.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5.00%	15
다소 높다	26.00%	78
보통이다	42.00%	126
조금 낮다	18.33%	55
매우 낮다	8.33%	25
관련 없음	0.33%	1
합계	100.00%	300
평균	3.00	
표준편차	1.00	

〈표 14〉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주가상승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긍정적	6.67%	20
다소 긍정적	41.00%	123
보통	27.67%	83
조금 부정적	4.67%	14
매우 부정적	1.00%	3
관련 없음	19.00%	57
합계	100.00%	300
평균	2.91	
표준편차	1.57	

〈표 15〉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매출확대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긍정적	6.00%	18
다소 긍정적	33.33%	100
보통	35.33%	106
조금 부정적	9.67%	29
매우 부정적	1.67%	5
관련 없음	14.00%	42
합계	100.00%	300
평균	2.90	
표준편차	1.41	

〈표 16〉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이익률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긍정적	3.33%	10
다소 긍정적	23.00%	69
보통	38.33%	115
조금 부정적	16.33%	49
매우 부정적	2.00%	6
관련 없음	17.00%	51
합계	100.00%	300
평균	2.58	
표준편차	1.40	

〈표 17〉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임직원 생산성 증진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긍정적	2.33%	7
다소 긍정적	28.00%	84
보통	33.00%	99
조금 부정적	13.67%	41
매우 부정적	4.33%	13
관련 없음	18.67%	56
총합	100.00%	300
평균	2.54	
표준편차	1.47	

〈표 18〉 0-6.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자금조달 비용 축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긍정적	4.33%	13
다소 긍정적	24.33%	73
보통	32.33%	97
조금 부정적	14.33%	43
매우 부정적	3.67%	11
관련 없음	21.00%	63
합계	100.00%	300
평균	2.48	
표준편차	1.53	



### 연구로부터 시사점

- 대다수 응답 기업이 ESG 전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을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각각의 평균값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앞선 질문들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비해 경영 현황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보통이다'로 판단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 추진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거나, 사업운영 상의 이익을 받은 기업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기존 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의 「한경 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에서 ESG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ESG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49.1%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고 ‘보통이다’에 23.1%, ‘매우 잘하고 있다’에 19.4% 응답함.
- 강성진 著 「ESG 제대로 이해하기」에서 전국 대학생 1,009명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조사결과, ‘국내 기업들의 ESG 책임 이행 수준은 미국, 유럽 등의 기업과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 ‘보통’ 수준이라고 46.0% 응답하였으며, ‘부족함’ 27%, ‘우수함’ 18.7%, ‘매우 부족함’ 4.6%, ‘매우 우수함’ 3.8%라고 응답하였음. 개별 요소 평가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이라고 답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ESG 분야 중 기업이 가장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배구조’(41.3%)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환경’(35.0%), ‘사회’(23.7%) 순이었음.
- (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자료 중 HSBC 글로벌 기업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국내기업(94%)이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하여 고객수요증가(39%), 직원복지증진(35%), 기후변화완화(28%), 지역사회기여(28%), 투자 유치를 통한 재정적 이익(28%), 브랜드 평판 개선(27%)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중 경기도 2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매출 및 가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5년 이내), 중장기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곳은 각각 93개(60.8%), 100개(65.3%)로 중장기적인 영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또한, ESG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개(13.7%)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49개(32%)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이는 ESG가 단기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가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가 ESG 경영 준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에 33.3%, '필요하지 않다'에 6.3%,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2.4% 응답함.

또한, 평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79.2%는 평가 결과가 거래량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하였음. 평가 결과 영향으로는 '거래 조건 개선, 거래량 확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해결 후 납품(15.8%)', '거래량 축소(10.5%)' 순이었음.

※ 시사점: 기업의 임직원 및 국민들이 ESG가 기업의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결과를 알 수 있었고, 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사의 ESG 대응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들은 '보통이다'와 '부족함'이 더 많았음.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임직원과 일반 소비자 간의 인식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일반 소비자는 아직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ESG 분야 중 대응을 못 하고있는 분야로 소비자들은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기업 담당자들과의 차이를 보여줌.

하지만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ESG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제 ESG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됨.

#### 다. ESG 경영 도입

ESG 경영을 추진하는 15가지 이유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 분포는 다음 <표 19>부터 <표 31>까지와 같음. 각 항목의 관련도에 대한 평균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ESG 관련 정부 정책 영향'(2.93), '경영자 요구'(2.80), '글로벌 ESG 관련 규제'(2.75), '국내외 주요 언론사 확산'(2.68), '경쟁기업의 ESG 활동'(2.64), '시민사회 요구'(2.63), '지역사회 요구'(2.48), '협회, 연합, 포럼 등 관련 단체'(2.43), '투자기관 요구'(2.40), '개인 소비자 요구'(2.33), '이사회의 요구'(2.27), '금융기관의 요구'(2.30) '기타'(2.22), '내부 임직원 요구'(2.19). 정부 정책과 글로벌 규제와 같은 강제성 성향이 있는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경영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도 상위 항목으로 기록되었음. 경쟁기업의 ESG 활동 또한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내부 임직원, 금융기관, 이사회, 개인 소비자의 요구는 하위에 기록되었음.

〈표 19〉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사회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6.67%	20
조금 높음	22.00%	66
보통	20.00%	60
조금 낮음	14.33%	43
매우 낮음	16.67%	50
관련 없음	20.33%	61
합계	100.00%	300
평균	2.27	
표준편차	1.61	

〈표 20〉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영자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4.00%	42
조금 높음	28.00%	84
보통	20.33%	61
조금 낮음	11.67%	35
매우 낮음	13.67%	41
관련 없음	12.33%	37
합계	100.00%	300
평균	2.80	
표준편차	1.60	

〈표 21〉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부 임직원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3.33%	10
조금 높음	16.67%	50
보통	25.00%	75
조금 낮음	19.33%	58
매우 낮음	22.33%	67
관련 없음	13.33%	40
합계	100.00%	300
평균	2.19	
표준편차	1.39	

〈표 22〉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투자기관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6.33%	19
조금 높음	22.00%	66
보통	22.67%	68
조금 낮음	18.33%	55
매우 낮음	16.00%	48
관련 없음	14.67%	44
합계	100.00%	300
평균	2.40	
표준편차	1.50	

〈표 23〉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기관의 요구(ex. 은행 등)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5.00%	15
조금 높음	19.67%	59
보통	24.00%	72
조금 낮음	18.00%	54
매우 낮음	18.33%	55
관련 없음	15.00%	45
합계	100.00%	300
평균	2.30	
표준편차	1.47	

〈표 24〉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 소비자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4.67%	14
조금 높음	20.33%	61
보통	23.33%	70
조금 낮음	20.33%	61
매우 낮음	17.33%	52
관련 없음	14.00%	42
합계	100.00%	300
평균	2.33	
표준편차	1.45	

〈표 25〉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쟁기업의 ESG 활동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8.00%	24
조금 높음	23.33%	70
보통	28.00%	84
조금 낮음	17.67%	53
매우 낮음	11.67%	35
관련 없음	11.33%	34
합계	100.00%	300
평균	2.64	
표준편차	1.45	

〈표 26〉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0.67%	32
조금 높음	23.00%	69
보통	24.33%	73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13.67%	41
관련 없음	12.67%	38
합계	100.00%	300
평균	2.63	
표준편차	1.54	

〈표 27〉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 요구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5.67%	17
조금 높음	22.67%	68
보통	26.33%	79
조금 낮음	18.00%	54
매우 낮음	14.33%	43
관련 없음	13.00%	39
합계	100.00%	300
평균	2.48	
표준편차	1.45	

〈표 28〉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내외 주요 언론사 확산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9.00%	27
조금 높음	24.67%	74
보통	25.67%	77
조금 낮음	17.00%	51
매우 낮음	13.67%	41
관련 없음	10.00%	30
합계	100.00%	300
평균	2.68	
표준편차	1.46	

〈표 29〉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글로벌 ESG 관련규제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3.33%	40
조금 높음	25.67%	77
보통	20.67%	62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12.67%	38
관련 없음	12.00%	36
합계	100.00%	300
평균	2.75	
표준편차	1.57	

〈표 30〉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ESG 관련 정부정책 영향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3.33%	40
조금 높음	31.00%	93
보통	22.00%	66
조금 낮음	13.33%	40
매우 낮음	9.67%	29
관련 없음	10.67%	32
합계	100.00%	300
평균	2.93	
표준편차	1.52	

〈표 31〉 1-1.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협회, 연합, 포럼 등 관련 단체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5.00%	15
조금 높음	20.00%	60
보통	28.67%	86
조금 낮음	18.00%	54
매우 낮음	16.33%	49
관련 없음	12.00%	36
합계	100.00%	300
평균	2.43	
표준편차	1.41	

ESG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를 택하는 질문의 응답 분포는 〈표 32〉와 같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영진 및 임직원의 인식 개선’(50.33%)을 꼽았음. 다음으로, ‘글로벌 고객사 ESG 요구 대응’(9.67%), ‘당사 ESG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9.00%), ‘공급망과 ESG 리스크 및 성과 관리 협력’(8.33%)이 10% 미만의 비슷한 비중을 기록함. 우선적인 이슈에 외부의 요구 및 성과 홍보보다는 조직 내부의 인식 개선을 꼽은 것으로 보임.



〈표 32〉 1-2 ESG 관련 귀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로 인한 당사 이미지 및 평판 관리	3.67%	11
경영진 및 임직원의 인식 개선 (ESG 추진 적극 참여)	50.33%	151
공급망(협력사)과 ESG 리스크 및 성과 관리 협력	8.33%	25
국내외 ESG 관련 규제 및 정부정책 선제 대응	7.33%	22
글로벌 고객사 (Ex. 바이어) ESG 요구 대응 (사업확대 및 신사업 창출)	9.67%	29
당사 ESG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9.00%	27
동종산업 내 ESG 확산을 위한 연합체 운영	1.67%	5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	3.00%	9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ESG 요구 대응 (자본조달 비용 축소)	6.67%	20
기타	0.33%	1
합계	100.00%	300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 분포는 다음 〈표 33〉부터 〈표 40〉까지와 같음. 각 항목을 평균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기업 평판 향상’(3.41), ‘장기적 경영성과 개선 도움’(3.32),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3.30), ‘사업 관련 리스크 선제적 대응’(3.24), ‘기업의 사업운영 역량 강화에 도움’(3.21), ‘국내외 ESG 평가대응력 향상’(3.13), ‘자금조달 개선, 세계감면 등 경제적 혜택 확보’(2.98),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2.98), ‘기타’(2.59). 기업 평판과 장기적 경영성과 등의 효과를 높게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ESG 패러다임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사업 관련 리스크 선제적 대응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5.33%	46
조금 높음	39.00%	117
보통	21.33%	64
조금 낮음	8.33%	25
매우 낮음	10.33%	31
관련 없음	5.67%	17
합계	100.00%	300
평균	3.24	
표준편차	1.40	

〈표 34〉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장기적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8.33%	55
조금 높음	35.33%	106
보통	23.67%	71
조금 낮음	9.33%	28
매우 낮음	9.33%	28
관련 없음	4.00%	12
합계	100.00%	300
평균	3.32	
표준편차	1.35	

〈표 35〉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1.00%	63
조금 높음	31.00%	93
보통	22.00%	66
조금 낮음	12.67%	38
매우 낮음	9.67%	29
관련 없음	3.67%	11
합계	100.00%	300
평균	3.30	
표준편차	1.38	

〈표 36〉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기업의 사업운영 역량강화에 도움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4.33%	43
조금 높음	33.67%	101
보통	28.33%	85
조금 낮음	9.67%	29
매우 낮음	10.00%	30
관련 없음	4.00%	12
합계	100.00%	300
평균	3.21	
표준편차	1.31	

〈표 37〉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자금조달 개선, 세제 감면 등 경제적 혜택 확보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0.33%	31
조금 높음	31.67%	95
보통	25.33%	76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12.67%	38
관련 없음	4.33%	13
합계	100.00%	300
평균	2.98	
표준편차	1.34	

〈표 38〉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국내외 ESG 평가대응력 향상

보기	백분율	응답
관련 없음	3.00%	9
매우 낮음	9.67%	29
매우 높음	12.33%	37
보통	23.67%	71
조금 낮음	17.33%	52
조금 높음	34.00%	102
합계	100.00%	300
평균	3.13	
표준편차	1.28	

〈표 39〉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기업 평판 향상(Ex. 명성, 이미지 등)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9.33%	58
조금 높음	38.33%	115
보통	21.33%	64
조금 낮음	9.33%	28
매우 낮음	8.67%	26
관련 없음	3.00%	9
합계	100.00%	300
평균	3.41	
표준편차	1.30	

〈표 40〉 1-3. 귀사는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8.67%	26
조금 높음	32.00%	96
보통	28.67%	86
조금 낮음	14.67%	44
매우 낮음	11.00%	33
관련 없음	5.00%	15
합계	100.00%	300
평균	2.98	
표준편차	1.30	

### 연구로부터 시사점

-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는 이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 기대하는 효과를 물었음. ESG 경영 추진 이유로는 정부 정책, 글로벌 규제 등 강제적 성격이 있는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언론사 확산이나 경쟁기업의 ESG 활동 또한 ESG 경영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영자의 요구는 상위에 기록되었으나, 이사회나 내부 임직원 요구는 낮게 기록되었음.
- 더불어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 개선’이 과반수가 넘는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ESG에 대한 내부적 관심 및 인식 개선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의 「한경 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인 플랜」 자료 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ESG 담당자 중 65.9%는 ‘정보공시 의무 강화’를 택했고, 57.6%는 ‘소비자의 높아진 잣대’를, 48.2%는 ‘연기금 등의 투자자 요구 증대’, 31.8%는 ‘기업평가 반영 때문에’, 27.1%는 ‘공급망 및 수출 규제 대응’이라고 응답함.
- (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자료 중 대부분 국내 기업(94%)이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하여 고객수요증가(39%), 직원복지 증진(35%), 기후변화완화(28%), 지역사회기여(28%), 투자 유치를 통한 재정적 이익(28%), 브랜드 평판 개선(27%)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자료 중 부산기업이 ESG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로 응답한 것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환경 및 노동정책 강화 등 규제 부담’ 32.4%, ‘거래처로부터 ESG 경영 요구’ 19.1%, ‘해외나 기관 등으로부터 자사 투자 유치’ 11.8% 순임. 이는 지역기업이 ESG라는 새로운 경영 화두에 대해 리스크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큰 반면, 자사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대, 신사업 추진 등 ESG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인식은 다소 낮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 300명 중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함.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8.3%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가 ESG 경영 준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에 33.3%, '필요하지 않다'에 6.3%,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2.4% 응답함.

또한,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이윤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국내외 거래처 요구(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에는 25.7%에 불과했으며, '준비할 계획이다(39.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은 정보공시 의무 강화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알 수 있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요구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이미지 관리 등의 리스크 관리가 중점적인 관심사이며, 기업은 ESG 추진을 통해서 실제 매출 및 이윤증가와 고객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얻고자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ESG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여겨짐.

## 라. ESG 경영 현황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와 담당 조직 설치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 <표 41>과 <표 42>와 같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는 전체 응답 중 15.67%였으며, 설치 예정인 곳은 16.33%를 차지하였음. 반면, 설치 계획이 없는 회사는 44.00%로 가장 큰 응답 비율을 보였음. 한편,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였으며, 구성 예정인 경우는 12.67%였음. 그 외 65% 이상의 기업들은 ESG 관련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비전담 조직에서 겸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 2-1. 귀사의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예	15.67%	47
ESG 위원회 설치 예정	16.33%	49
현재 타 위원회가 겸업 (Ex 경영위원회 등)	24.00%	72
ESG 위원회 설치 계획 없음	44.00%	132
합계	100.00%	300

〈표 42〉 2-2. 귀사 내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예	21.00%	63
전담조직 구성 예정	12.67%	38
현재 비전담 조직에서 겸업 중	25.00%	75
ESG 관련 업무 비정기적 수행	41.33%	124
합계	100.00%	300

〈표 43〉의 결과에 따르면,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임원을 두었거나 선임예정인 곳은 22.67%를 차지함(선임예정 10.00%, 선임 완료 12.67%). ESG 총괄 임원 선임 계획이 없는 조직은 47.00%를 차지함.

〈표 43〉 2-3. 귀사는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임원(Ex. CSO 등)을 두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예	12.67%	38
현재 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겸직 중	30.33%	91
선임예정	10.00%	30
ESG 총괄 임원 선임 계획 없음	47.00%	141
합계	100.00%	300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 〈표 44〉와 같음. 수립한 회사는 13.00%이며, 수립 예정인 회사는 24.33%에 달했음. 기존 경영전략 내에 포함한 회사는 25.00%를 차지함. 반면, ESG 관련 비전 및 전략체계가 없는 경우는 37.67%였음.

〈표 44〉 2-4. 귀사는 (별도의)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예	13.00%	39
기존 경영전략 내 포함	25.00%	75
수립 예정	24.33%	73
아니오. ESG 관련 비전 및 전략체계 없음	37.67%	113
합계	100.00%	300



ESG 경영목표는 다음 <표 45>와 같은 결과를 보였음. ‘문제 발생되지 않을 정도’와 ‘별도 목표 없음’이 각각 36.33%와 31.67%를 차지함. 반면, ‘국내 상위권’과 ‘글로벌 상위권’은 각각 22.00%, 10.00%에 그쳤음.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높은 목표 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회사보다 법, 규제를 따르거나 이슈 발생 시 대응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45> 2-5. 귀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ESG 경영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국내 상위권	22.00%	66
글로벌 상위권	10.00%	30
문제 발생되지 않을 정도 (국내 산업 평균 수준 또는 관련 법/규제 대응 수준)	36.33%	109
별도 목표 없음 (이슈 발생 시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	31.67%	95
합계	100.00%	300

### 연구로부터 시사점

- ESG 위원회, ESG 전담조직, 총괄 임원 등에 대한 답변은 비슷한 분포를 가짐. 전담 부서 및 임원을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회사의 비중은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계획이 없는 경우는 4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ESG 리스크 및 성과를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구조 및 업무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ESG 경영 목표를 상향 설정한 기업은 32%이며, 68%는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별도의 목표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만 설정하고 있음. ESG가 미래 기업의 변화상을 보고 싶어 하는 고객사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비재무 정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들이 외부 압력에 대한 단순 대응 이상으로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의 「한경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회사에서 ESG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조사한 결과, ‘별도 ESG 조직이 있다’에 54.7% 응답하였음. ‘CSR팀(또는 사회공헌)이 있다’에 29.5%, ‘IR팀이 있다’에 15.7%를 응답하였고, 이들은 기존의 CSR팀이나 IR부서에서 추가적으로 ESG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ESG 부서 구성 인원수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인원 10명 미만’에 69.5%, ‘기간 6개월 미만’에 37.5% 으로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이 응답하였음.
- 매일경제의 「이것이 ESG다」본문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 99곳 중 68곳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장 선임까지 끝낸 곳은 50곳임. 10대 그룹 상장사 위원장 50명 중 교수 출신 26명, 권력기관 출신 6명, 기업인 출신 6명, 변호사 4명, 해당 회사 대표이사 2명, 언론인 출신 1명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에는 25.7%에 불과했으며, ‘준비할 계획이다(39.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순으로 나타남.  
또한 ESG 경영 준비 전담조직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없다’가 76.3%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계획이 있다’에 18.3%, ‘전담조직이 있다’에 5.3% 응답하였음.
-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중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ESG관련 담당 조직 마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도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37.1%, ‘필요 시 담당 조직구성(TF 구성)’ 25.7% 순임.  
또한, 응답 업체의 65.0%가 ‘ESG경영전략 수립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23.0%가 ‘향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수립했다’는 12.0% 응답하였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ESG 경영이 대기업 위주 전략으로 중소기업엔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업체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딱히 불이익이 없음’ 27.1%, ‘노력 대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음’ 23.5%, ‘일시적 경영 트렌드로 그칠 것으로 예상’ 17.6% 순임.

※ 시사점: 조사 대상에 따라서 ESG 조직 설치에 대한 응답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경우에만 이러한 조직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조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ESG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이 ESG를 중요 업무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를 담은 표준업무분장을 배포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ESG 대응 수준 및 계획 수준 또한 설문 대상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상에 따른 차별적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줌.

응답자들은 ESG 경영의 양측면 중 회사가 더욱 중점을 두는 측면을 ‘기회 창출’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특성 중에 양자택일하였으며, ‘기회 창출’이 46.67%를, ‘리스크 관리’가 53.33%를 차지하였음. 그 분포는 <표 46>과 같음.

<표 46> 2-6. ESG경영은 크게 리스크 관리와 기회 창출이라는 양측면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둘 중 보다 중점을 두는 측면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기회 창출	46.67%	140
리스크 관리	53.33%	160
합계	100.00%	300

ESG 활동 및 성과와 KPI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7>과 같음. ‘아니오’ 답변이 48.3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모든 임원 KPI에 ESG 반영’이 10.67%로 가장 낮았음. ESG 전담팀이나 담당 임원 KPI에 ESG를 반영한다는 회사는 30% 정도를 차지하였음.

〈표 47〉 2-7. 귀사는 ESG 활동과 성과를 KPI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모든 임원 KPI에 ESG 반영	10.67%	32
담당 임원 KPI와 ESG 전담팀 (또는 겸업팀) KPI에 ESG 반영	15.33%	46
일부 임원 KPI에 ESG 반영	11.33%	34
ESG 전담팀 (또는 겸업팀) KPI에 국한하여 ESG 반영 (Ex. 팀장 이하 팀원)	14.33%	43
아니오	48.33%	145
합계	100.00%	300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ESG 관련 업무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8〉에서 〈표 54〉와 같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입 인력, 업무 일수, 지출 비용을 추가 조사하였음. 응답한 회사들의 평균 투입인력은 업무에 따라 4명 혹은 5명이었으며, 평균 업무 일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편차를 보였음. 가장 적은 평균 일수를 보인 업무는 ‘기타’로 61일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 일수는 ‘보고서 발간’으로 평균 90일이었음. 지출 비용은 업무별로 상이하여, ‘현업부서 ESG 관련 업무 지원’에 평균 1,237,869,023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투자기관 및 고객사 등 ESG 요청 대응’에 평균 64,436,898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표 48〉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평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62.33%	187
예	37.67%	113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5
평균 업무 일수		70
평균 연간 지출 비용		346,991,368

〈표 49〉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77.00%	231
예	23.00%	69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5	
평균 업무 일수	90	
평균 연간 지출 비용	298,753,953	

〈표 50〉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전략 및 이행계획 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62.00%	186
예	38.00%	114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4	
평균 업무 일수	81	
평균 연간 지출 비용	1,062,318,680	

〈표 51〉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투자기관 및 고객사 등 ESG 요청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63.67%	191
예	36.33%	109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4	
평균 업무 일수	64	
평균 연간 지출 비용	64,436,898	

〈표 52〉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현업부서 ESG 관련 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59.33%	178
예	40.67%	122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5	
평균 업무 일수	71	
평균 연간 지출 비용	1,237,869,023	

〈표 53〉 2-8.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69.33%	208
예	30.66%	92
합계	102.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4	
평균 업무 일수	80	
평균 연간 지출 비용	184,386,040	

〈표 54〉 2-8. 이 외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가 수행하는 [기타] 업무가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아니오	73.33%	220
예	26.67%	80
합계	100.00%	300
‘예’라고 대답한 회사의 평균 업무 투입인력	4	
평균 업무 일수	61	
평균 연간 지출 비용	453,100,085	

※ [기타] 업무에는 CSR, 홍보, IR, 기획 등이 있음

대외 ESG 평가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사업 기회 창출 및 확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표 55>와 같음. 해당 영향력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40.6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은 2.93임.

<표 55> 2-10. 귀사의 대외 ESG 평가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사업 기회 창출 및 확대)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다	6.67%	20
다소 높다	23.00%	69
보통이다	40.67%	122
조금 낮다	15.67%	47
매우 낮다	14.00%	42
합계	100.00%	300
평균	2.93	
표준편차	1.10	

한편, ESG 평가대응 결과로 인해 사업이 영향을 받은 적 있는 경험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56>과 같음. 52.67%의 응답자는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긍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다소 있다’, ‘긍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다’라는 응답은 각각 23.00%, 6.33%를 차지하였음.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다소 있다’와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다’의 경우, 각각 15.00%와 3.00%를 차지함.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회사들을 제외한 47%에 달하는 회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ESG 성과가 투자사, 고객사 등과의 관계나 사업 확대에 영향을 준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음.

<표 56> 2-11. 귀사는 대외 ESG 평가대응 결과(Ex. 평가등급, 평가점 등)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은 적(경험)이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평가대응과 사업 영향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2.67%	158
긍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다소 있다 (투자사, 고객사 등과 사업확대에 일부 도움).	23.00%	69
긍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다 (투자사, 고객사 등과 사업확대에 크게 도움).	6.33%	19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다소 있다 (투자사, 고객사 등으로부터 일부 사업 기회가 제한).	15.00%	45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다 (투자사, 고객사 등으로부터 대부분 사업 기회가 제한).	3.00%	9
합계	100.00%	300

대외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현안 이슈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의 문항별 응답 분포는 <표 57>과 같음. ‘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이 없다’라는 답변이 38.67%를 차지하였으며, ‘ESG 평가를 요청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가 18.33%,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가 16.33%를 차지하였음. 최근 새로운 관심 주제가 된 ESG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평가를 요청하는 기관이 많으며, 평가 기준이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장애 요인임을 시사함.

<표 57> 2-12. 귀사는 대외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떠한 현안이슈가 있습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또는 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전문가)이 없다.	38.67%	116
ESG 평가에 대해 경영진 및 현업부서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4.33%	13
ESG 평가를 요청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 (Ex. 정부기관, 투자기관, 고객사, 평가기관 등).	18.33%	55
개별 평가에서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데이터 및 성과관리 관리체계가 없다.	10.67%	32
개별 평가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Ex. 제3 자기관 인증비용 등).	11.67%	35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16.33%	49
합계	100.00%	300

### 연구로부터 시사점

- 응답자들은 ESG 경영의 ‘기회 창출’과 ‘리스크 관리’라는 양 측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공감하는 듯하나, KPI와의 연계, 사업에의 영향력과 관련된 답변을 보면, ESG 경영이 아직 내재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ESG를 전담할 내부인력이 없다는 것이 많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보이며, 평가 지표들이 어렵고 평가기관들의 수가 많다는 것도 어려운 점으로 꼽힘. ESG 경영과 공시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회사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담 인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의「한경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회사에서 ESG 관련 연간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가 78.7%, ‘아니다’가 21.3%였음.  
또한, ESG 활동과 관련해 발간하는 공식 자료를 묻는 설문에는 ‘연 1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63%로 가장 많은 비율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없음’에 약 37%, ‘활동보고서 수시’에 약 11% 응답하였음. 내년 ESG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소폭 확대’가 43.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에 40.8%, ‘2배 확대’에 15.7% 응답하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ESG 평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79.2%는 ‘평가결과가 거래량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응답하였음. 평가결과 영향으로는 ‘거래 조건 개선, 거래량 확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해결 후 납품(15.8%)’, ‘거래량 축소(10.5%)’ 순이었음.
- ※ 시사점: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ESG 평가 경험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연 1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 ESG 관련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있음.  
또한,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 15.7%의 기업은 ESG 관련 예산 규모를 2배 확대시킨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에 대한 의견과 대응 수준에 대한 질문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다음 <표 58>과 <표 59>와 같음. 공급망과 관련된 ESG 관리의 중요성 인식은 ‘다소 중요함’이 38.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통’이 35.00%를 차지하였음. 반면,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3.00%가 ‘보통’, 28.00%가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이라 답하였음.

〈표 58〉 2-13. 귀사는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협력사)과 ESG 성과개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중요함	11.67%	35
다소 중요함	38.67%	116
보통	35.00%	105
별로 중요하지 않음	11.00%	33
전혀 중요하지 않음	3.67%	11
합계	100.00%	300
평균	3.44	
표준편차	0.96	

〈표 59〉 2-14. 금년 2월에 EU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due diligence)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공급망(협력사) ESG 실사 의무화 움직임에 대한 귀사의 대응 수준은 어떠합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2.00%	6
다소 준비하고 있음	19.00%	57
보통	33.00%	99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	28.00%	84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음	18.00%	54
합계	100.00%	300
평균	2.59	
표준편차	1.05	

〈표 60〉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준비하는 이유는 ‘당사 이미지 및 평판 제고를 위해’, ‘공급망 ESG 확산이 사업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가 각각 35.29%, 28.37%를 차지했으며, ‘정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22.84%), ‘글로벌 고객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13.49%)가 뒤를 이음.

〈표 61〉에 나타난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한 애로사항은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 인식이 미흡’, ‘실사 전문인력 부족’,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증가’가 85% 이상을 차지함. 〈표 62〉에 나타난 공급망 리스크 중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협력사 임직원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가 41.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사고’가 그 뒤를 이음 (27.00%).

〈표 60〉 2-14-1. 귀사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당사 이미지 및 평판 제고를 위해	35.29%	102
공급망 ESG 확산이 사업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8.37%	82
정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84%	66
현재 당사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 (Ex. 바이어) 요구가 있기 때문에	13.49%	39
합계	100.00%	289

〈표 61〉 2-14-2. 귀사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준비하지 않거나, 준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증가	25.34%	75
실사 전문인력 부족	25.68%	76
실사에 대한 공급망(협력사) 호응이 부족	13.18%	39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인식이 미흡	35.81%	106
합계	100.00%	296

〈표 62〉 2-14-3. 귀사는 공급망 리스크 중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협력사 근로자의 노동/인권	11.00%	33
협력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19.67%	59
협력사 임직원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41.00%	123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사고	27.00%	81
기타	1.33%	4
합계	100.00%	300

## 연구로부터 시사점

- 공급망과 관련된 ESG 관리 및 성과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으나, 대응 수준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임.
- 공급망 실사 의무화 준비 이유에는 이미지 및 평판 제고 혹은 사업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와 같은 자발적인 인식이 정부 규제 혹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와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한 것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함. 반면, 준비와 시행의 애로사항은 정보 및 인식 부족, 인력 부족 등 내부적인 준비 부족에 이유가 있었음.
- 공급망 ESG 의무화 대응을 위해, 정부 및 협단체 주도의 중소기업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실사 인력 양성,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확산 등의 활동이 필요함.

## 마. ESG 우선순위 및 애로사항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분야별 중요도의 분포는 <표 63>부터 <표 66>과 같음. 응답자 중 60%가 환경을 1순위로 꼽았으며, 사회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55.33%로 가장 많음. 지배구조의 경우, 응답자의 66.67%가 3순위 중요도로 꼽았음. 각 분야의 중요성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환경(E)의 평균은 3.59, 사회(S)의 평균은 3.37, 지배구조(G)의 평균은 3.03을 기록하여, 우선순위 질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표 63〉 3-1.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1, 2, 3)

보기	백분율	응답
환경(E)		
1	60.00%	180
2	28.00%	84
3	12.00%	36
합계	100.00%	300
사회(S)		
1	23.33%	70
2	55.33%	166
3	21.33%	64
합계	100.00%	300
지배구조(G)		
1	16.67%	50
2	16.67%	50
3	66.67%	200
합계	100.00%	300

〈표 64〉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환경(E)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30.67%	92
조금 높음	30.67%	92
보통	19.67%	59
조금 낮음	8.67%	26
매우 낮음	6.33%	19
관련 없음	4.00%	12
합계	100.00%	300
평균	3.59	
표준편차	1.37	

〈표 65〉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S)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9.00%	57
조금 높음	30.67%	92
보통	28.00%	84
조금 낮음	15.00%	45
매우 낮음	5.00%	15
관련 없음	2.33%	7
합계	100.00%	300
평균	3.37	
표준편차	1.22	

〈표 66〉 3-1. 각 분야별로 귀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배구조(G)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7.67%	53
조금 높음	18.67%	56
보통	30.33%	91
조금 낮음	18.33%	55
매우 낮음	12.67%	38
관련 없음	2.33%	7
합계	100.00%	300
평균	3.03	
표준편차	1.34	

환경(E) 측면 활동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67〉과 같음.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량 감축’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49.67%로 절반에 가까웠음. ‘환경오염물질 저감’의 경우,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7.67%),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은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39.67%로 가장 많았음.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4순위로 꼽는 응답자들이 56.67%로 가장 많았음. 반면 〈표 68〉에서 〈표 71〉에 따르면, 각 활동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순위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음.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량 감축’항목의 영향력 평균 (3.41)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영향력 평균 (3.25)보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3.13)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영향력 평균 (3.06)이 더 높았음. 이는 현재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과 ESG 관련하여 우선시하는 활동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표 67〉 3-2. 아래의 환경(E)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1, 2, 3, 4, 5)

보기	백분율	응답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배출량 감축		
1	49.67%	149
2	28.00%	84
3	15.67%	47
4	5.67%	17
5	1.00%	3
합계	100.00%	300
환경오염물질 저감		
1	19.00%	57
2	37.67%	113
3	30.00%	90
4	12.67%	38
5	0.67%	2
합계	100.00%	300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1	22.00%	66
2	17.00%	51
3	39.67%	119
4	20.00%	60
5	1.33%	4
합계	100.00%	300
자원순환(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1	8.67%	26
2	17.00%	51
3	13.67%	41
4	56.67%	170
5	4.00%	12
합계	100.00%	300

〈표 68〉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배출량 감축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0.67%	62
조금 높음	28.67%	86
보통	26.00%	78
조금 낮음	12.33%	37
매우 낮음	20.67%	62
관련 없음	4.33%	13
합계	100.00%	300
평균	3.41	

〈표 69〉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환경오염물질 저감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0.00%	60
조금 높음	30.00%	90
보통	21.67%	65
조금 낮음	16.33%	49
매우 낮음	7.67%	23
관련 없음	4.33%	13
합계	100.00%	300
평균	3.25	

〈표 70〉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4.00%	42
조금 높음	32.33%	97
보통	24.67%	74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8.33%	25
관련 없음	5.00%	15
합계	100.00%	300
평균	3.13	



〈표 71〉 3-2.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4.67%	44
조금 높음	28.33%	85
보통	23.67%	71
조금 낮음	19.00%	57
매우 낮음	10.00%	30
관련 없음	4.33%	13
합계	100.00%	300
평균	3.06	

사회(S) 측면 활동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72〉과 같음.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43.00%로 가장 많았음.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을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34.00%,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34.67%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지역사회 기여’ 또한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33.67%, 4순위로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33.33%로 비슷한 결과를 보임. 반면,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의 경우 43.00%의 응답자들이 이 항목을 4순위로 뽑았음. 〈표 73〉에서 〈표 76〉에 따르면, 활동들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질문들에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한 항목은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3.39)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기록한 항목은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3.08)이었음. 또한, 4가지 활동들 모두 평균이 3 이상으로 환경(E) 측면보다 그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음.

〈표 72〉 3-3. 아래의 사회(S)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1, 2, 3, 4, 5)

보기	백분율	응답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1	43.00%	129
2	32.67%	98
3	18.67%	56
4	5.33%	16
5	0.33%	1
합계	100.00%	300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		
1	14.67%	44
2	34.00%	102
3	34.67%	104
4	16.33%	49
5	0.33%	1
합계	100.00%	300
지역사회 기여 (Ex. 사회공헌 등)		
1	19.00%	57
2	12.33%	37
3	33.67%	101
4	33.33%	100
5	1.67%	5
합계	100.00%	300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		
1	23.33%	70
2	20.67%	62
3	12.67%	38
4	43.00%	129
5	0.33%	1
합계	100.00%	300

〈표 73〉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8.67%	56
조금 높음	37.00%	111
보통	22.00%	66
조금 낮음	12.67%	38
매우 낮음	6.67%	20
관련 없음	3.00%	9
합계	100.00%	300
평균	3.39	
표준편차	1.27	

〈표 74〉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0.67%	32
조금 높음	29.00%	87
보통	32.67%	98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9.67%	29
관련 없음	2.33%	7
합계	100.00%	300
평균	3.08	
표준편차	1.21	

〈표 75〉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 기여 (Ex. 사회공헌 등)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5.00%	45
조금 높음	27.67%	83
보통	29.00%	87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10.00%	30
관련 없음	2.67%	8
합계	100.00%	300
평균	3.14	
표준편차	1.29	

〈표 76〉 3-3.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6.33%	49
조금 높음	33.33%	100
보통	25.00%	75
조금 낮음	14.67%	44
매우 낮음	8.33%	25
관련 없음	2.33%	7
합계	100.00%	300
평균	3.28	
표준편차	1.26	

지배구조(G) 측면 활동들의 우선순위 분포는 〈표 77〉과 같음. ‘주주권리 보호’를 1순위로 택한 응답자의 비중이 44.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항목은 2순위 (38.67%), ‘감사제도 투명화 강화’항목은 3순위(40.67%), ‘배당정책 강화’항목은 4순위 (79.67%)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표 78〉에서 〈표 81〉에 따르면, 각 항목의 평균 또한 같은 순서대로 ‘주주권리 보호’(3.27)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3.25) ‘감사제도 투명화 강화’(3.25) ‘배당정책 강화’(2.97)로 나타남.

〈표 77〉 3-4. 아래의 지배구조(G) 측면 활동 중 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1, 2, 3, 4, 5)

보기	백분율	응답
주주권리 보호		
1	44.00%	132
2	31.67%	95
3	19.33%	58
4	3.67%	11
5	1.33%	4
합계	100.00%	300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1	26.33%	79
2	38.67%	116
3	30.00%	90
4	4.67%	14
5	0.33%	1
합계	100.00%	300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1	26.00%	78
2	23.67%	71
3	40.67%	122
4	8.33%	25
5	1.33%	4
합계	100.00%	300
배당정책 강화		
1	3.67%	11
2	6.00%	18
3	9.00%	27
4	79.67%	239
5	1.67%	5
합계	100.00%	300

〈표 78〉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주주권리 보호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9.00%	57
조금 높음	30.33%	91
보통	25.67%	77
조금 낮음	13.33%	40
매우 낮음	6.67%	20
관련 없음	5.00%	15
합계	100.00%	300
평균	3.27	
표준편차	1.36	

〈표 79〉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9.00%	57
조금 높음	26.67%	80
보통	29.00%	87
조금 낮음	14.67%	44
매우 낮음	7.00%	21
관련 없음	3.67%	11
합계	100.00%	300
평균	3.25	
표준편차	1.31	

〈표 80〉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9.33%	58
조금 높음	27.00%	81
보통	29.00%	87
조금 낮음	12.67%	38
매우 낮음	8.33%	25
관련 없음	3.67%	11
합계	100.00%	300
평균	3.25	
표준편차	1.33	

〈표 81〉 3-4. 각 활동별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배당정책 강화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2.67%	38
조금 높음	21.00%	63
보통	30.33%	91
조금 낮음	21.67%	65
매우 낮음	10.67%	32
관련 없음	3.67%	11
합계	100.00%	300
평균	2.92	
분산	1.30	

글로벌 시장에서 강조되는 기후변화 아젠다 이외에 향후 ESG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달라는 질문의 응답 분포는 〈표 82〉와 같음.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와 ‘자원 순환’이 각각 37.00%와 28.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83〉과 같음.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으로 꼽은 응답자들이 26.67%로 가장 많았으며, ‘제한된 자원(예산)’과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이 각각 12.67%와 11.67%로 그 뒤를 이음.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ESG에 대한 인식 및 의지 부족보다는 전문성, 자원 부족 등이 ESG 경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82〉 3-5.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탈석탄 패러다임 등 기후변화 아젠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ESG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정보공시 의무화 (ESG Reporting)	13.00%	39
공급망 실사 (Supply ESG Due-diligence)	6.00%	18
생물다양성 (Bio Diversity & Deforestation)	6.67%	20
인권보호 및 다양성 (Human Rights & Diversity)	9.00%	27
자원순환 (Circular Economy)	28.33%	85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 (Taxonomy)	37.00%	111
합계	100.00%	300

〈표 83〉 3-6. 귀사가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CEO 인식 부족	8.33%	25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11.67%	35
ESG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6.67%	20
ESG 추진의 사업 효과성 확인 불가	9.67%	29
신뢰할 만한 시장 내 ESG 서비스기관 부족 (외부전문가)	10.00%	30
임원진 인식 부족 (CEO 제외)	9.33%	28
제한된 자원 (예산)	12.67%	38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 (인적자원)	26.67%	80
현업부서의 제한적 협조	4.33%	13
미응답	0.67%	2
합계	100.00%	300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84〉에서 〈표 87〉과 같음. ‘동종산업 벤치마킹’(2.58), ‘ESG 관련 외부교육 수강’(2.37), ‘컨설팅 등 외부 전문가 자문 획득’(2.33), ‘정부 ESG 지원제도 신청’(2.28) 순으로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음. 아직은 독자적인 ESG 경영 체계를 만들기보다 동종산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4〉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 자문 획득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4.67%	14
조금 높음	18.67%	56
보통	23.67%	71
조금 낮음	18.33%	55
매우 낮음	27.00%	81
관련 없음	7.67%	23
합계	100.00%	300
평균	2.33	



〈표 85〉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동종산업 벤치마킹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6.33%	19
조금 높음	19.67%	59
보통	29.00%	87
조금 낮음	21.67%	65
매우 낮음	17.33%	52
관련 없음	6.00%	18
합계	100.00%	300
평균	2.58	

〈표 86〉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ESG 관련 외부교육 수강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5.00%	15
조금 높음	15.33%	46
보통	26.67%	80
조금 낮음	24.67%	74
매우 낮음	21.00%	63
관련 없음	7.33%	22
합계	100.00%	300
평균	2.37	

〈표 87〉 3-6-1. 귀사는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정부 ESG 지원제도 신청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3.67%	11
조금 높음	13.67%	41
보통	27.00%	81
조금 낮음	27.00%	81
매우 낮음	20.33%	61
관련 없음	8.33%	25
합계	100.00%	300
평균	2.28	

한편,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들의 분포는 <표 88>에서 <표 92>와 같음.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3.23), ‘ESG 관련 역량 강화 위한 교육 확산’(3.22), ‘ESG 평가 지표 및 기준 통합’(3.18),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3.16),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3.15) 순으로 높은 평균을 기록함.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업무 가이드라인, 산업계 지식정보 확산,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88>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CEO 및 임원진 인식 개선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8.00%	54
조금 높음	29.33%	88
보통	22.67%	68
조금 낮음	14.33%	43
매우 낮음	12.33%	37
관련 없음	3.33%	10
합계	100.00%	300
평균	3.16	

<표 89>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관련 역량강화 위한 교육 확산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6.67%	50
조금 높음	29.33%	88
보통	26.67%	80
조금 낮음	16.67%	50
매우 낮음	7.67%	23
관련 없음	3.00%	9
합계	100.00%	300
평균	3.22	

〈표 90〉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정보공개 기준 표준화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2.67%	38
조금 높음	32.33%	97
보통	26.67%	80
조금 낮음	16.67%	50
매우 낮음	8.67%	26
관련 없음	3.00%	9
합계	100.00%	300
평균	3.15	

〈표 91〉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평가 지표 및 기준 통합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5.67%	47
조금 높음	27.00%	81
보통	30.67%	92
조금 낮음	16.00%	48
매우 낮음	8.00%	24
관련 없음	2.67%	8
합계	100.00%	300
평균	3.18	

〈표 92〉 3-7. 귀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17.00%	51
조금 높음	28.67%	86
보통	29.67%	89
조금 낮음	13.33%	40
매우 낮음	8.00%	24
관련 없음	3.33%	10
합계	100.00%	300
평균	3.23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93>에서 <표 97>과 같음.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3.56),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규모, 금리)’(3.46), ‘ESG 도입 및 실천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3.33), ‘ESG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3.33),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 및 홍보’(3.32)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임. 경제적 지원과 정책 금융 확대 등 재정적 유인이 높은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음.

<표 93>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도입 및 실천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2.67%	68
조금 높음	26.67%	80
보통	25.00%	75
조금 낮음	15.33%	46
매우 낮음	7.33%	22
관련 없음	3.00%	9
합계	100.00%	300
평균	3.33	

<표 94>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7.33%	82
조금 높음	30.67%	92
보통	22.00%	66
조금 낮음	12.33%	37
매우 낮음	6.00%	18
관련 없음	1.67%	5
합계	100.00%	300
평균	3.56	

〈표 95〉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성과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4.67%	74
조금 높음	28.00%	84
보통	24.67%	74
조금 낮음	15.00%	45
매우 낮음	6.33%	19
관련 없음	1.33%	4
합계	100.00%	300
평균	3.46	

〈표 96〉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1.33%	64
조금 높음	27.00%	81
보통	26.33%	79
조금 낮음	16.00%	48
매우 낮음	7.67%	23
관련 없음	1.67%	5
합계	100.00%	300
평균	3.33	

〈표 97〉 3-8.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인증 및 홍보

보기	백분율	응답
매우 높음	20.00%	60
조금 높음	29.00%	87
보통	25.33%	76
조금 낮음	15.67%	47
매우 낮음	8.67%	26
관련 없음	1.33%	4
합계	100.00%	300
평균	3.32	

## 연구로부터 시사점

- ESG 각 분야에서 우선순위와 중요성 순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순으로 동일하였음. 반면, 기업별 사업모델 및 경영방식에 따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ESG 활동은 다르게 나타났음. 예를 들어 환경 분야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기록된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배출량 감축’의 경우, 사업에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음. 즉, ESG 경영을 할 때 해당 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사업에 영향력이 큰 활동은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혹은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같은 다른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인식 및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ESG 성과개선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자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기업은 ESG 실행을 위해 경제적 지원,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ESG 경영 도입 및 실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금융, 산업계 조성기금, 소셜펀딩 등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 「한경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 중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내의 ‘회사에서 ESG 사업 집행 시 어려운 점’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ESG 전문가 부족’에 66.7%, ‘평가기관마다 다른 ESG 평가 지표’에 54.6%,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에 32.4% 응답하였음.  
또한, ESG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분야를 물어보는 항목에서 ‘환경’에 69.4%, ‘사회적 가치’에 23.5%, ‘지배구조’에 7.1%라고 응답함.  
또한, ESG 사업 및 연간 계획에 포함된 항목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75.3%,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약 73%,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약 71%, ‘지역 사회 개발’에 약 71% 등의 순서로 응답함.  
ESG 경영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받은 적 있다’에 49.4% 응답하였고, 25.9%는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또한 62.4%는 유료 데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37.6%만이 ‘그렇다’고 답함.  
투자 흐름에 잘 대처하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는 ‘표준화된 ESG 가치지표’ 76.9%,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약 57%, ‘ESG 전문가 육성’ 52%, ‘한국형 ESG 평가지표 개발’에 약 38% 응답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자료에서 국민 300명은 분야별로 기업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환경 분야 이슈를 묻는 항목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플라스틱 과다사용에 대한 생태계 오염’(36.7%), ‘기후변화 가속화’(21.0%), ‘환경호르몬’(19.7%), ‘미세먼지’(15.0%), ‘지하수/수돗물 오염’(3.3%), ‘각종 동식물 멸종’(2.3%), ‘토지 내 중금속’(1.7%).  
사회는 ‘일자리 부족’(31.7%), ‘근로자 인권 및 안전’(31%), ‘소득 양극화’(14%), ‘비정규직 문제’(9.6%), ‘협력사 관계’(7.0%), ‘전근대적 기업문화’(6.3%) 순이었음.  
지배구조는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36.3%),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모럴해저드’(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중 ESG 중 부산 지역기업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는 E(환경)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사회) 27.0%, G(지배구조) 2.0% 순임.  
또한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ESG 정보 부족’을 응답한 업체가 4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 투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41.0%, ‘ESG 평가 지표의 통일성 부족’ 9.0%, ‘원청사의 무리한 ESG 도입 요구’ 4.0% 순이었음.
- 경기연구원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연 연구」중 경기도 2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따르면, ESG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71.7%가 ‘환경’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21.7%), ‘지배구조’(6.7%) 순으로 나타나 최근 기후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ESG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KOSME 이슈포커스「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ESG 부문 중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 ‘환경’을 꼽았으며 47.7%가 응답하였음. ‘사회’에는 32.8%, ‘지배구조’에는 15.1%가 응답하였음. 또한, 실천한 ESG 경영 활동은 ‘사회’ 부문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환경’ 부문에 32.7%, ‘지배구조’에 17.8%, ‘기타’에 2.9%가 응답하였음.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환경’에 19.5%, ‘협력사와 공정거래’에 13.6%, ‘지역사회 공헌’에 9.9%, ‘소비자 권익 보호’에 2.8% 응답하였음. 환경 부분에서는 ‘환경 법규 준수’에 15.7%, ‘에너지, 물 등 자원 소비 절감’에 9.2%,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에 8.0% 응답하였음.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윤리경영 및 반부패 활동’에 9.4%, ‘이사회 다양성, 주주 권익 보호, 투명한 회계 공시’에 5.7% 응답하였음. ESG 경영 도입, 실천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에 37.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어서 ‘ESG 전문인력 부족’에 22.7%,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16.3%,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에 10.0%, ‘다양하고 복잡한 ESG 평가기준’에 6.7%, ‘ESG 경영 도입 시 인센티브 부족’에 3.0%,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에 1.0% 등으로 응답하였음. ESG 경영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에 55.3%, ‘진단·컨설팅’에 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에 29.7%, ‘역량 강화 교육’에 20.3%, ‘인센티브 제공’에 19.0% 등으로 나타났다.



- 자본시장연구원의 「골드만삭스 사례를 통해 바라본 금융투자회사의 ESG 경영」 자료 중 이러한 설문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SG 인프라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ESG 관련 데이터 및 공시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음.

※ 시사점: 기업은 보통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었음.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순으로 ESG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이것은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환경 부분이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애로사항으로는 표준화된 ESG 지표 결여, 정보 부족 그리고 비용 부담을 꼽았음. 환경 중요도가 높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환경 규제들이 도입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비롯해 내수 위주의 기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됨.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및 진단·컨설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음.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 또한 ESG 관련 데이터 및 공시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추가적으로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등의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바. ESG 정보공개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지지 여부, 이유, 선호하는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표 98>에서 <표 104>와 같음. 우선, 규제(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73.33%로, ESG 정보공개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SG 정보공개 규제 필요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업의 잠재적 ESG 위험·기회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34.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반면,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4가지 선택지 모두 20%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음. 즉, 1) ESG 정보공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ESG 정보가 주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 3) ESG 정보검증 시장 미발달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점, 그리고 4) 기존의 제도가 비슷한 정보공개를 이미 요구하고 있는 점 모두가 고른 선택을 받음.

ESG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되, 기업별 예외 사항 적용’, ‘법·제도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규정하되, 산업·기업별 중요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이 각각 33.00%와 3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ESG 정보공개 지표 및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

되는 기준을 적용'이 37.67%로 가장 높았으며, 'ESG 분야 이해관계자(투자기관, 서비스 기관, 기업 등) 협의를 통해 기준 개발'이 35.00%를 차지함. 따라서 통용되는 기준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비슷한 지지를 받음을 알 수 있음.

한편, ESG 정보공개 대상 기업은 'KOSPI 상장기업 및 KOSDAQ 상장기업 전체'와 'KOSPI 상장기업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상위기업'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각각 29.67%와 28.67%로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ESG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시간에는 '3년 이내'가 과반수 이상(51.00%)의 선택을 받았음.

〈표 98〉 4.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필요함	73.33%	220
필요 없음	26.67%	80
합계	100.00%	300

〈표 99〉 4-1.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ESG 영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	26.36%	58
사업보고서에서 획득할 수 없는, 비재무적 측면의 기업 활동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	23.18%	51
정보공개 요구가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	15.45%	34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의 잠재적 ESG 위험·기회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34.55%	76
미응답	0.45%	1
합계	100.00%	220

〈표 100〉 4-2. ESG 정보공개 규제(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정보를 평가, 인증 및 검증하는 시장의 미발달로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	23.75%	19
기업 활동 및 성과 평가,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ESG 정보가 주요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	25.00%	20
기존 법·제도가 상당 수준의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 (Ex. 사업보고서 녹색경영공시 등)	22.50%	18
정보공개 기준, 범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져 정보분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	27.50%	22
미응답	1.25%	1
합계	100.00%	80

〈표 101〉 4-3. ESG 정보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된 모든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Mandatory)	22.33%	67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되, 기업별 예외 사항 적용 (Comply or Explain)	33.00%	99
법·제도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규정하되, 산업·기업별 중요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 (Selective)	31.67%	95
ESG 정보의 공개 여부, 수준, 범위, 공개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Autonomous)	13.00%	39
합계	100.00%	300

〈표 102〉 4-4. ESG 정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분야 이해관계자(투자기관, 서비스기관, 기업 등) 협의를 통해 기준 개발	35.00%	105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Ex. GRI, SASB 등)	37.67%	113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	11.33%	34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정보공개 기준 선정 (자율공시)	16.00%	48
합계	100.00%	300

〈표 103〉 4-5. ESG 정보공개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KOSPI 상장기업 및 KOSDAQ 상장기업 전체	29.67%	89
KOSPI 상장기업 전체	20.67%	62
KOSPI 상장기업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상위 기업 (Ex. KOSPI 200 등)	28.67%	86
KOSPI 상장기업, KOSDAQ 상장기업 및 KONEX 상장기업 전체	20.33%	61
미응답	0.67%	2
합계	100.00%	300

〈표 104〉 4-6. ESG 정보공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1년 이내	8.33%	25
3년 이내	51.00%	153
5년 이내	28.33%	85
5년 이상	12.33%	37
합계	100.00%	300

〈표 105〉에 따르면, ESG 정보공개 활성화에 있어 장애요인은 ‘ESG 시장 (Ex. 투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미성숙하여 기업은 정보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가 3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업의 이익보다 서비스 기관(Ex. 평가, 의결권자문, 인증·검증 등)의 이익만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의견도 27.00%를 차지하였음. 이를 통해 ESG 정보공개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보다는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SG 정보공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106〉과 같음. ‘정보공개 비용 대비 구체적인 편익을 기업에 제시’, ‘재무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지표 및 기준 최적화/최소화’가 각각 30.00%와 29.33%를 차지함. 기업의 준비 과정 및 비용 부담을 덜어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ESG 정보공개가 제도화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표 107〉과 같음.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인증 및 검증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와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적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이 각각 32.67% 와 31.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105〉 4-7. ESG 정보공개 활성화에 있어 장애요인(Hurdle)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시장 (Ex. 투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미성숙하여 기업은 정보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	33.00%	99
기업의 ESG 성과 수준이 낮아 현재 수준에서 정보공개가 어렵다	19.33%	58
기업의 이익보다 서비스 기관 (Ex. 평가, 의결권 자문, 인증·검증 등)의 이익만 증가시키고 있다	27.00%	81
기업의 정보공개가 ESG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재무 관점의 인센티브가 낮다	20.67%	62
합계	100.00%	300

〈표 106〉 4-8.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기존 ESG 정보공개 채널 및 방식과 통합 (Ex. 사업보고서 녹색경영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필요	19.00%	57
산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기준, 범위, 절차, 방식을 수립	21.67%	65
재무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지표 및 기준 최적화/최소화	29.33%	88
정보공개 비용 대비 구체적인 편익을 기업에 제시 (Ex. 정보 조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등)	30.00%	90
합계	100.00%	300

〈표 107〉 4-9.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제도화될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장 비용 (시장의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 비용)의 발생	22.00%	66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적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31.00%	93
기존의 개별 법·제도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중복 문제 (Ex.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14.00%	42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인증 및 검증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32.67%	98
미응답	0.33%	1
합계	100.00%	300

ESG 경영활동 시 가장 선호되는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108>과 같음. 'KRX(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28.33%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하였으며,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가 19.33%의 선택을 받음.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도 각각 13.3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음.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보다 KRX(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선택한 공시기준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글로벌 트렌드 반영', 'ESG 정보공개 시 편리성, 간결성', '다수의 국내기업이 선택'이 각각 24.67%, 24.00%, 22.00%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선택, 시장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음.

<표 108> 4-10. 귀사의 경우 경영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 ESG 경영 활동 시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공시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기	백분율	응답
DJSI, MSCI, KCGS 등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11.00%	33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19.33%	58
KRX(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28.33%	85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13.33%	40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13.33%	40
WEF(세계경제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통지표	12.67%	38
미응답	2.00%	6
합계	100.00%	300

<표 109> 4-10-1. 상기에서 선택한 공시기준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기	백분율	응답
ESG 정보공개 시 편리성·간결성	24.00%	72
글로벌 트렌드 반영	24.67%	74
다수의 국내 기업이 선택	22.00%	66
산업별 특성 반영	17.33%	52
투자자들이 선호/요구	10.33%	31
미응답	1.67%	5
합계	100.00%	300

## 연구로부터 시사점

- 응답자들 대부분이 ESG 정보공개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정보공개 방식에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기업별 예외 사항을 적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음. 국내외 ESG 정보공시 표준인 GRI, SASB, TCFD는 ESG 정보공개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EU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ESG 정보공개 규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등 기업이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동향과 국내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ESG 시장의 미성숙으로 정보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비재무 성과 공시로 인한 업무 및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SG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편익을 제시하고 공적 기관에서 지표 및 기준을 최적화 및 제도화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

-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연구」중 경기도 2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따르면, ESG 경영·투자 확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안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1, 2 순위는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제정’과 ‘ESG 경영 및 혁신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음.

또한 ‘ESG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역량 강화’의 경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응답률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현장밀착형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중 “국내의 ESG 정보 의무화 확대 흐름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ESG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이러한 의무 도입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공시 법제화보다는 자본 시장 변화와 경쟁에 의한 압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공시 의무화의 대상 또한,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공시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확대해야 하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와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공시기준과 상이할 경우, 각각에 맞는 데이터를 관리, 구축해야 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ESG도 산업별 특성이 존재하기에 단일 기준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음.

- ※ 시사점: ESG 평가 지표의 통일성 부족 및 ESG 전문가 부족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비용이 초기에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함. 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적응 시간과 역량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또한, 현장밀착형 지원이 중요함.



## 제4장 계량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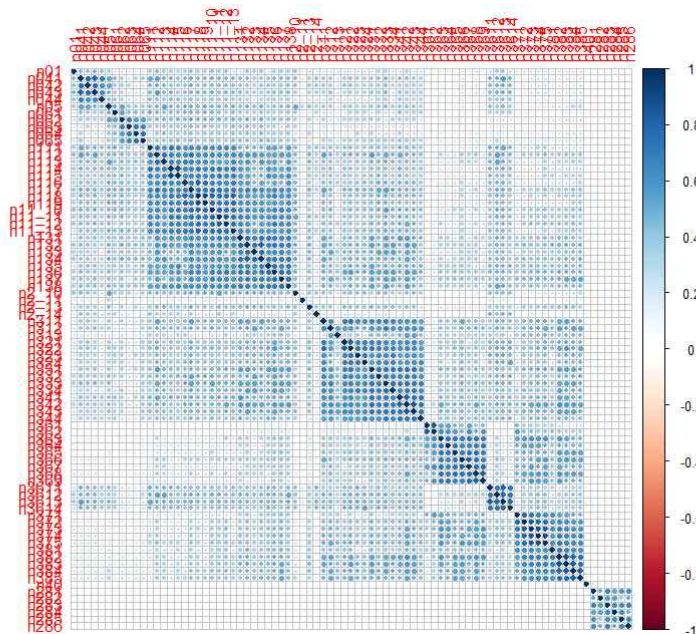
### 1. 분석 개요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클러스터링 기법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심화 이해를 도모하였음.

### 2. 상관관계 분석

- 5점 척도를 사용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음. 설문지 내 거리가 멀지 않은 질문들끼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설문지 구성 상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연달아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됨.

<그림 1> 5점 척도 질문 전체 상관분석



- <문항 0-1>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항 0-3> ‘귀하는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SG 전반’, <문항 0-5>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문항 간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의 <부록 1>과 같음.

- 4개 질문의 상관관계는 모두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질문은 회사의 경영 수준을 묻는 <문항 0-4>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 0-5>과 0.54의 상관성을 보였음.
- 반면, ESG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 0-3>과 ESG 경영 수준을 반영하는 <문항 0-4>의 상관계수가 0.2로 낮아, 중요성을 인식한 정도와 실제 실행은 그 상관성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음.
- ▶ 해당 질문들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해당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같은 방향을 보여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ESG의 중요성과 ESG 경영 수준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것을 통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영 수준은 그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3. 기업 규모별 분석

- 기업의 규모에 따른 5점 척도 질문들의 응답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의 <부록 2>와 <부록 3>에 나타나있음.
  - 회사의 규모에 따라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들의 평균은 3.09, 중견기업의 경우 3.05, 중소기업의 경우 2.82였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음.
  - 반면, 회사의 ESG 전반 경영수준을 묻는 <문항 0-4>에 대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들이 판단한 회사의 ESG 전반의 경영 수준 평균은 3.32, 중견기업의 경우 2.89, 중소기업의 경우 2.47이었음.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ESG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보통'수준 전후로 비슷하나, ESG 전반에 대한 경영 수준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았음. ESG 시장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있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ESG 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며,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해석됨.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ESG 흐름에 맞춰 비재무적 요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업 규모별 범주형 변수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문항 2-1> '귀사의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항 2-2> ‘귀사 내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문항 2-3> ‘귀사는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 임원(Ex. CSO 등)을 두고 있습니까?’, <문항 2-4> ‘귀사는 (별도의)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까?’, <문항 2-5> ‘귀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ESG 경영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질문에 대하여 각각 기업의 규모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다섯 번의 검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4>에서 <부록 8>과 같음.

- 기업 규모와 5개 질문의 응답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조직 내부의 ESG 경영 내재화 혹은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 업무에 대한 조직 내의 준비도가 높으며, 비전과 목표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음. 즉,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비슷하게 인식하더라도 대응 수준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ESG 경영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나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 규모별로 대외 ESG 평가대응 관련 내부적 현안이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2-12>의 ‘귀사는 대외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떠한 현안 이슈가 있습니까?’ 질문에 대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답안을 분류하고 각각 비율을 살펴보았음.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기업 규모별 ESG 평가대응 관련 내부 현안이슈 (단위: %)

구분	내부인력 없음	중요성인식 없음	요청기관 과다	관리체계 없음	시간/비용 과다 소요	이해어려움
대기업	32.35	19.61	5.88	7.84	12.75	21.57
중견기업	41.03	17.95	3.42	12.82	14.53	10.26
중소기업	43.21	17.28	3.70	11.11	6.17	18.52

- 내부인력 없음: ESG (또는 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전문가)이 없다.
- 중요성인식 없음: ESG 평가에 대해 경영진 및 현업부서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요청기관과다: ESG 평가를 요청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 (Ex. 정부기관, 투자기관, 고객사, 평가기관 등)
- 관리체계 없음: 개별 평가에서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데이터 및 성과관리 관리체계가 없다.
- 시간/비용 과다소요: 개별 평가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Ex. 제3자기관 인증비용 등)
- 이해어려움: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 그 결과, 대기업이기 때문에 ESG 평가대응에 관하여 더 많은 요구를 받고 그에 따른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대기업에서

가장 높았음. 이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중견기업은 ‘ESG (또는 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전문가)이 없다’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개별 평가에서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데이터 및 성과관리 관리체계가 없다’와 ‘개별 평가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Ex. 제3자 기관 인증비용 등)’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 중소기업 역시 내부인력 부족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 ▶ 따라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SG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평가 지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 양성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은 요구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다른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기업 규모별로 공급망 ESG 성과 관련 이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 2-13>의 ‘귀사는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협력사)과 ESG 성과개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고 각 비율을 살펴보았음.

<표> 기업 규모별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과 ESG 성과개선 협력’중요성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대기업	15.69	41.18	26.47	14.71	1.96
중견기업	11.11	37.61	38.46	9.40	3.42
중소기업	7.41	37.04	40.74	8.64	6.17

-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 협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보통(3점)’으로 답한 비율이 상승하는데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의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됨.
- ▶ 대기업에서 전반적으로 공급망 ESG 관련 대응을 중요시하는 것은 대기업일수록 거래하는 협력사가 많고 대기업의 상징성/대표성으로 인해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대기업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이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급망 ESG를 강제하는 등 대기

업의 공급망 ESG 대응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 수록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인식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음.

□ 기업 규모별로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문항 3-6>의 ‘귀사가 ESG 경영을 도입 및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았음.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기업 규모별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CEO 인식 부족	정보 부족	인센티브 부족	효과성 확인 불가	서비스 기관 부족	임원진 인식 부족	재원 부족	전문가 부족	협조 부족	미응답
대기업	6.86	10.78	9.80	10.78	10.78	10.78	8.82	25.49	6.86	0.98
중견기업	5.98	13.68	6.84	8.55	12.82	12.82	9.40	33.33	2.56	0.00
중소기업	13.58	9.88	2.47	9.88	4.94	4.94	22.22	18.52	3.70	1.23

- CEO인식 부족: CEO 인식 부족
- 정보 부족: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 인센티브 부족: ESG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 효과성확인 불가: ESG 추진의 사업 효과성 확인 불가
- 서비스기관 부족: 신뢰할 만한 시장 내 ESG 서비스기관 부족 (외부전문가)
- 임원진인식 부족: 임원진 인식 부족 (CEO 제외)
- 재원 부족: 제한된 재원 (예산)
- 전문가 부족: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 (인적자원)
- 협조 부족: 현업부서의 제한적 협조
- 미응답: 미응답

- 그 결과, 대기업은 ‘ESG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 (인적자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에서도 ‘조직 내 ESG 전문가 부족 (인적자원)’이 큰 문제라고 파악되며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임. 그 외 ‘ESG 도입 및 실천 관련 정보 부족’, ‘신뢰할 만한 시장 내 ESG 서비스 기관 부족 (외부전문가)’에서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제한된 재원 (예산)’이 나머지 두 규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CEO 인식 부족’과 ‘임원진 인식 부족 (CEO 제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중소기업은 ‘인식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중견기업은 원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고 얻은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보’분야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중견기업에 ESG 관련 정보 제공이 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조직 내 ESG 전문가 양성이, 중소기업에는

임원진 인식 향상과 함께 ESG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선호하는 ESG 정보공개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 4-3>의 ‘ESG 정보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업 규모별 비율을 비교하였음.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기업 규모별 선호하는 ESG 정보공개 방식 (단위: %)

구분	의무화	의무화/예외	선택	자율
대기업	28.43	34.31	28.43	8.82
중견기업	22.22	33.33	30.77	13.68
중소기업	14.81	30.86	37.04	17.28

- 의무화: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된 모든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Mandatory)
- 의무화/예외: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되, 기업별 예외 사항 적용 (Comply or Explain)
- 선택: 법·제도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규정하되, 산업·기업별 중요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 (Selective)
- 자율: ESG 정보의 공개 여부, 수준, 범위, 공개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Autonomous)

- 그 결과, 대기업은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되, 기업별 예외 사항 적용 (Comply or Explain)’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법·제도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규정하되, 산업·기업별 중요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 (Selective)’와 ‘법·제도 등을 통해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 (Mandatory)’를 동일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 ‘ESG 정보의 공개 여부, 수준, 범위, 공개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Autonomous)’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
- 중견기업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의무화하되 예외 사항 적용 (Comply or Explain)’, ‘선택 적용 (Selective)’이고 이 두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음.
- 한편, 중소기업은 ‘자율 결정 (Autonomous)’를 선호하는 비율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선택 적용 (Selective)’에서는 다른 두 그룹을 넘어서 가장 높은 선호 비율을 보여주었음.
- 또한,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Mandatory)’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였음.
- ▶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자율 방식과 의무화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의무화하되 예외를 두는 방식을 선호함을 말해줌. 이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의무화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자율 방식과 선택적 방식에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모든 기업에 ESG 정보공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별로 ESG 정보공개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 업종별 분석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따른 5점 척도 질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음. 설문 조사에 참여한 300개의 기업이 속한 산업은 총 27가지 종류였으나, 그 중 응답 회사 수가 20명 이상인 산업들(IT/통신, 화학, 소비재/제조/판매, 금융)만을 고려하였음. 결과는 부록의 <부록 9>에서 <부록 12>과 같음.
- <문항 2-10> ‘귀사의 대외 ESG 평가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사업 기회 창출 및 확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IT/통신’의 경우 2.69, ‘화학’의 경우 3.08, ‘소비재/제조/판매’의 경우 2.81, ‘금융’ 산업의 경우 3.14의 평균을 기록하였음. ESG 분야별 회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 3-1>의 산업에 따른 평균 차이는 다음과 같음.
  - 환경(E)의 중요성에 대해 ‘IT/통신’ 산업은 2.83, ‘화학’의 경우 3.86, ‘소비재/제조/판매’의 경우 3.9, ‘금융’ 산업의 경우 3.66의 평균을 보였음.
  - 반면, 사회(S)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IT/통신’ 산업과 ‘화학’은 3.3, ‘소비재/제조/판매’의 경우 3.36, ‘금융’ 산업의 경우 3.85의 평균을 보였음.
  - 거버넌스(G)의 경우, ‘IT/통신’ 산업은 3.11 ‘화학’은 2.73, ‘소비재/제조/판매’의 경우 3.00, ‘금융’산업의 경우 3.61의 평균을 보였음.
- ▶ ESG 평가대응에 관련하여 금융 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응답 평균이 높음. ESG 평가대응은 금융 분야의 과제이기에 그에 따라 관련 응답 평균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금융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 중 사회 분야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금융 산업은 건물에서 쓰이는 전력과 수도 이외에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낮고 지배구조 분야에서 타 산업 대비 규제 수준이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회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 반면, 소비재/제조/판매 산업과 화학 산업의 경우, 업종 내에서 이슈로 떠오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음. 반면, IT/통신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을 다소 낮게 보고 있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신이 속한 업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혹은 이슈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여겨짐.
- 업종별로 공급망 ESG 성과 관련 이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 2-13>의 ‘귀사는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협력사)과 ESG 성과개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고 각 비율을 살펴보았음. 업종은 상위 4개 업종(전체의 7%인 21개 이상의 기업이 응답한 업종)인 IT/통신, 화학, 소비재/제조/판매,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만 살펴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업종별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과 ESG 성과개선 협력’중요성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중요함	다소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IT/통신	11.11	25.00	47.22	11.11	5.56
화학	13.04	47.83	13.04	26.09	0.00
소비재/제조/판매	0.00	59.09	27.27	13.64	0.00
금융	4.76	33.33	42.86	14.29	4.76

- 대체적으로 화학 업종이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ESG 성과개선 협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소비재/제조/판매업종에서도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약 60%로 상당히 높은 편임.
- ▶ 이 두 업종의 특성상 협력사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관리의 필요성을 더 잘 느끼는 것으로 보임.
- ▶ 반면, IT/통신,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공급사 ESG 관리를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특징일 수 있음.

## 5. 군집화를 통한 기업 특성 분류

- 마지막으로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응답들의 분포에 따라 회사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음.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부록 13〉)
- 첫 번째 집단의 응답 평균은 〈문항 0-1〉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항 0-3〉 ‘귀하는 ESG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0-4〉 ‘귀사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ESG 전반’, 〈문항 0-5〉 ‘귀사의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순으로 2.58, 3.15, 2.38, 2.24이며,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동일 순으로 각각 3.60, 4.43, 3.35, 3.60이었음. 300개의 표본 중 130개의 회사가 첫 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70개 회사는 두 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음.
- ▶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항목에서 첫 번째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음. 첫 번째 집단은 3.14 평균을 보인 〈문항 0-3〉을 제외한 질문들에서 3.00보다 낮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집단은 모두 보통을 상회하는 평균을 보였다는 점에서 ESG 인식과 경영 수준 모두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군집 모형은 위에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과 결과가 다르지 않음.

〈표〉 〈문항 0-1〉,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질문의 군집별 평균

집단	〈문항 0-1〉 응답 평균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회사 개수
집단 1	2.58	3.15	2.38	2.24	130
집단 2	3.60	4.43	3.35	3.60	170



## 제5장 정성적 분석

### 1. 시사점 도출 및 제언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표 4> ~ <표 13>: ESG의 인식수준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지식수준이 높지 않으며, 자기 회사의 ESG 경영 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회사의 ESG 경영 수준의 분포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음.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경영 수준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ESG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적 방법을 고민해야 함.
- <표 10> ~ <표 12>: ESG 중에서 사회 부분의 경영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부분 내용이 일반적인 기업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사회공헌이나 기업 복지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환경 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의 답변이 많았을 것이고, 실제 환경성과를 측정해서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정성적이지 않아서 사회 부분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배구조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국내기업이 오너 중심으로 성장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제시하는 우수사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안 대비 국내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따라서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강조와 관심이 필요하며, 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환경 부문에 있는 직원들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회 부분의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거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표 13> ~ <표 18>: ESG 경영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주가 상승과 매출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사실 ESG 경영이 주가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익률 개선, 임직원 생산성 증진, 자금조달 비용 축소 등의 항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으며, 실제 성과로 인식되는 과정이 간접적이거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ESG

의 실질적인 성과가 조직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될 필요가 있음. 외부적 성과는 다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 임직원들의 통제력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적 성과는 그렇지 않음. 내부적 성과에 중점을 둔 ESG 관련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함.

- <표 19> ~ <표 31>: 현재 ESG를 추진하는 이유가 외부에서의 압력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음. 특히 경영자의 요구는 2.80인데 반면에 내부 임직원의 요구는 2.19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경영자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됨. 내부적인 필요가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실제 내부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ESG 경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 <표 32> ~ <표 40>: ESG 관련하여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영진 및 임직원의 인식 개선”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언급 되었던 것과 같이 외부적 압력을 아직 내부적 이슈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경영진과 임직원들에 대한 인식 향상이 매우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됨. 또한, 장기적 성과, 새로운 기회 창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장기적, 미래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 (이러한 항목들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순위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등과 같은 과거에 대한 책임의 관점이나 현재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이 균형적 시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음. ESG 경영의 핵심이 이해관계자 경영임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통계조사 결과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1순위는 경제적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세제혜택, 금융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ESG 경영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표 41> ~ <표 45>: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15.67%),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며(21.00%),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임원을 두었고(12.67%) 별도의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했다(13.00%)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대략 15% 정도의 기업(상위권)이 이미 ESG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판단됨(이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소한 국내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됨). 반대로, ESG위원회의 설치 계획이 없고(44.00%), ESG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며(41.33%),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 없고(47.00%) 별도의 중장기 ESG 비전 및 전략체계가 없다(37.67%)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대략 40% 정도의 기업(하위권)은 ESG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ESG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이 기업들은 ESG 경영의 목표가 없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됨) 나머지 45% 정도의 기업(중위권)은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

련 지원이나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최소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 46>: 리스크 관리가 기회 창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관리가 53.33%, 기회 창출이 46.6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향후 ESG 관련 다양한 접근의 방식이 기회 창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ESG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례가 필요하고 ESG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및 교육, ESG 연계 신사업 개발 워크숍 등 사내 벤처 육성과의 연계, ESG 연계 창업 커뮤니티/모임 등의 운영이 필요할 것임.
- <표 48> ~ <표 54>: 귀사의 ESG 전담자 또는 겸업자는 ESG 평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0% 정도 '예'라고 응답하고 있음. 이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항목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3.00%)과 ESG 성과 관리 업무(30.66%)임. 상대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55>, <표 56>: ESG 평가대응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 기회 창출 및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29.67%가 영향이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표 46>에서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ESG 평가대응 결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33%가 상당히 많다고 응답하였고, 다소 영향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47.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응답이 29.32%, 부정적인 응답이 18.00%로 긍정적인 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임. 사업기회 창출 및 확대의 의미가 긍정적인 응답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부정적인 경험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됨. 따라서, ESG 평가대응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을 전파 및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표 57>에서 ESG 평가대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당면한 현안 이슈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고,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ESG 평가 방법론은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SG 평가 방법론의 개선 또는 대상 맞춤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또한, ESG 평가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개별 평가요청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30.00%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 또는 모듈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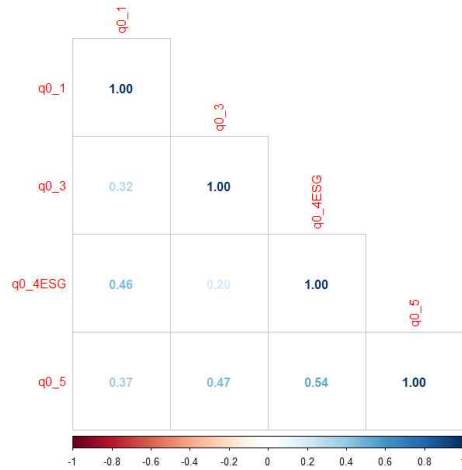
- <표 58> ~ <표 62>: <표 6>에 의하면, ESG가 실제 기업 경영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반면에, <표 58>에 의하면, 공급망(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협력사)과 ESG 성과 개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0%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표 19> ~ <표 32>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정부 정책의 영향(2.93점)보다 <표 58>의 항목이 더 높은 3.44점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공급망 이슈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유사한 값이 나타나야 하는 항목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들의 용어의 정의 및 문장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됨.) 하지만, <표 59>에서 나타나듯이,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수준은 다시 낮아져서 유사한 다른 문항들의 값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편임. 즉,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 대응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60>의 의무화 준비 이유는 <표 33> ~ <표 40>의 ESG 경영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질문 응답 분포 결과와 방향성과 맥락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음. 특이한 것은 <표 61>의 결과임.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인식이 미흡하다는 항목이 35.33%로 나타나 다른 문항들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임. 이것은 단어만을 해석하여 인식할 때와 실무적으로 이 이슈를 다룰 때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이 필요함. 또한, 주목할만한 점으로 환경 분야의 리스크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노동/인권/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향후 환경 분야보다 노동/인권/안전보건 분야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표 88> ~ <표 98>: <표 88> ~ <표 92>의 문항에서, 경영진 인식 개선, 역량 강화 교육 확산, 정보 공개 기준 표준화, 평가 지표 및 기준 통합, 구체적 방법론 확산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ESG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했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음. (ESG 분야만의 특징적인 점이 없음) 따라서 응답자들은 모든 항목을 비슷하게 평가했고, 특별히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됨. 자발적인 ESG 확산을 위해서는 위와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 제도, 정책,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렇지 않다면 의무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은 <표 93>, <표 98>에도 잘 나타나 있음. 다만 <표 94> ~ <표 97>에서와 같이, ESG 정보공개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경제적 지원, 정책 금융 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정부 인증 및 홍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ESG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강성진 외 12명, 2021, ESG 제대로 이해하기, 자유기업원
- 경기연구원, 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영기 외 23명, 2021, ESG경영, 브레인플랫폼(주)
- 김재필, 2021,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 대한상공회의소, 2021,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매일경제 ESG팀, 2021, 이것이 ESG다, 매경출판(주)
- 문성후, 2021, 부를 부르는 ESG, 플랜비디자인
- 부산상공회의소, 2021,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
- (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ESG경영연구회, 2021,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자유아카데미
- 자본시장연구원, 2021, 골드만삭스 사례를 통해 바라본 금융투자회사의 ESG 경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제신문, 2021, 환경MOOK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 K-기업 서바이벌 플랜, 한국경제신문
- 한국법제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 부록. 통계 분석 관련 자료

<부록 1> <문항 0-1>,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 상관분석



<부록 2> 기업 규모별 <문항 0-4> 응답 평균

```

size  q0_4ESG
1  대기업  3.323529
2  중견기업  2.897436
3  중소기업  2.469136
    
```

<부록 3> 기업 규모별 <문항 0-5> 응답 평균

```

size  q0_5
1  대기업  3.098039
2  중견기업  3.059829
3  중소기업  2.827160
    
```

### 〈부록 4〉 회사 규모와 〈문항 2-1〉 교차분석

fac\$size 예   현재	facSq2_1 타 위원회가 검입(ex 경영위원회 등)	ESG 위원회 설치 예정	Row Total	ESG 위원회 설치계획 없음	
대기업	13	29	36	24	
102	0.804	5.619	25.081	0.009	
0.340	0.127	0.284	0.353	0.235	
	0.265	0.220	0.766	0.333	
	0.043	0.097	0.120	0.080	
중견기업	24	52	10	31	
117	1.251	0.005	3.786	0.304	
0.390	0.205	0.444	0.085	0.265	
	0.490	0.394	0.213	0.431	
	0.080	0.173	0.033	0.103	
중소기업	12	51	1	17	
81	0.114	6.620	10.769	0.306	
0.270	0.148	0.630	0.012	0.210	
	0.245	0.386	0.021	0.236	
	0.040	0.170	0.003	0.057	
Column Total	49	132	47	72	
300	0.163	0.440	0.157	0.240	

Statistics for All Table Factors

Pearson's Chi-squared test

Chi^2 = 54.66864    d.f. = 6    p = 5.407446e-10

### <부록 5> 회사 규모와 <문항 2-2> 교차분석

fac\$size	fac\$q2_2	ESG 관련 업무 비정기적 수행		예	전담조직 구성예성   현재 비전담 조직에서 결업 중	
Row Total						
대기업	23	45	12	22	102	
	8.707	25.958	0.066	0.480		
	0.225	0.441	0.118	0.216	0.340	
	0.185	0.714	0.316	0.293		
	0.077	0.150	0.040	0.073		
중견기업	56	16	15	30	117	
	1.207	2.989	0.002	0.019		
	0.479	0.137	0.128	0.256	0.390	
	0.452	0.254	0.395	0.400		
	0.187	0.053	0.050	0.100		
중소기업	45	2	11	23	81	
	3.964	13.245	0.053	0.373		
	0.556	0.025	0.136	0.284	0.270	
	0.363	0.032	0.289	0.307		
	0.150	0.007	0.037	0.077		
Column Total	124	63	38	75	300	
	0.413	0.210	0.127	0.250		

Statistics for All Table Factors

Pearson's Chi-squared test

Chi^2 = 57.06462 d.f. = 6 p = 1.77271e-10

### <부록 6> 회사 규모와 <문항 2-3> 교차분석

fac\$size	fac\$q2_3	ESG 총괄 인원 선임계획 없음		Row Total	선임예정	
예   현재 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결직 중					
대기업	32	9	25	36		
102						
	5.300	0.141	11.295	0.828		
	0.314	0.088	0.245	0.353		
0.340						
	0.227	0.300	0.658	0.396		
	0.107	0.030	0.083	0.120		
중견기업	58	11	11	37		
117						
	0.165	0.042	0.985	0.064		
	0.496	0.094	0.094	0.316		
0.390						
	0.411	0.367	0.289	0.407		
	0.193	0.037	0.037	0.123		
중소기업	51	10	2	18		
81						
	4.392	0.446	6.650	1.757		
	0.630	0.123	0.025	0.222		
0.270						
	0.362	0.333	0.053	0.198		
	0.170	0.033	0.007	0.060		
Column Total	141	30	38	91		
300						
	0.470	0.100	0.127	0.303		

Statistics for All Table Factors

Pearson's Chi-squared test

Chi^2 = 32.06274 d.f. = 6 p = 1.587185e-05



### <부록 7> 회사 규모와 <문항 2-4> 교차분석

fac\$size	facSq2_4	기존 경영전략 예	내 포함	Row Total	수립예정	아니오. ESG 관련 비전 및 전략체계 없음
대기업	102	24	0.088	24	22	32
			0.235	0.235	7.018	26.485
	0.340	0.320	0.329	0.329	0.216	0.314
		0.080	0.080	0.080	0.195	0.821
					0.073	0.107
중견기업	117	29	0.002	32	51	5
		0.248	0.438	0.438	1.090	6.854
	0.390	0.387	0.438	0.438	0.436	0.043
		0.097	0.107	0.107	0.451	0.128
					0.170	0.017
중소기업	81	22	0.151	17	40	2
		0.272	0.373	0.373	2.952	6.910
	0.270	0.293	0.210	0.210	0.494	0.025
		0.073	0.233	0.233	0.354	0.051
			0.057	0.057	0.133	0.007
Column Total	300	75	73	73	113	39
		0.250	0.243	0.243	0.377	0.130

Statistics for All Table Factors  
 Pearson's Chi-squared test  
 Chi^2 = 52.38642 d.f. = 6 p = 1.559235e-09

### <부록 8> 회사 규모와 <문항 2-5> 교차분석

fac\$size	facSq2_5	글로벌 상위권 (이슈 발생 시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	클래스 상위권	문제 발생되지 않을 정도 (국내 산업평균 수준 또는 관련 법/규제 대응 수준)	Row Total	별도 목표
대기업	33	33	16	20	102	
		4.969	8.226	9.416		
	0.445	0.324	0.157	0.196		
		0.500	0.168	0.667	0.340	
	0.303	0.110	0.053	0.067		
	0.110					
중견기업	47	22	39	9	117	
		0.543	0.103	0.623		
	0.474	0.188	0.333	0.077		
	0.402	0.333	0.411	0.300	0.390	
	0.431	0.073	0.130	0.030		
	0.157					
중소기업	29	11	40	1	81	
		2.610	8.028	6.223		
	0.006	0.136	0.494	0.012		
	0.358	0.167	0.421	0.033	0.270	
	0.266	0.037	0.133	0.003		
	0.097					
Column Total	109	66	95	30	300	
	0.363	0.220	0.317	0.100		

Statistics for All Table Factors  
 Pearson's Chi-squared test  
 Chi^2 = 41.66698 d.f. = 6 p = 2.139228e-07

<부록 9> 산업별 <문항 2-10> 응답 평균

	industry	q2_10
1	IT.통신	2.694444
2	건설	2.857143
3	광고	4.000000
4	그 외 기타	2.300000
5	금속.비금속	3.142857
6	금융	3.142857
7	기계.장비	2.882353
8	기관.단체	2.666667
9	농림수산	5.000000
10	미디어	3.000000
11	부동산	2.916667
12	상하수.환경	5.000000
13	생활.여가서비스	2.857143
14	설계.엔지니어링	2.500000
15	소비재 제조.판매	2.818182
16	여객.운송.물류	2.666667
17	연구.조사	2.000000
18	유통.판매	3.055556
19	자동차.조선.철도.항공	3.200000
20	자문	3.000000
21	전기 장비.제품	2.750000
22	전력.연료	3.400000
23	전문서비스	2.076923
24	전자.통신 제조	3.733333
25	제약.바이오	2.785714
26	지주회사.본부	3.181818
27	화학	3.086957

<부록 10> 산업별 <문항 3-1 E> 응답 평균

	industry	q3_1_E
1	IT.통신	2.833333
2	건설	3.428571
3	광고	5.000000
4	그 외 기타	3.000000
5	금속.비금속	3.285714
6	금융	3.666667
7	기계.장비	3.705882
8	기관.단체	3.333333
9	농림수산	5.000000
10	미디어	3.600000
11	부동산	3.250000
12	상하수.환경	5.000000
13	생활.여가서비스	3.428571
14	설계.엔지니어링	3.500000
15	소비재 제조.판매	3.909091
16	여객.운송.물류	3.750000
17	연구.조사	5.000000
18	유통.판매	3.777778
19	자동차.조선.철도.항공	4.200000
20	자문	4.000000
21	전기 장비.제품	4.250000
22	전력.연료	4.800000
23	전문서비스	2.538462
24	전자.통신 제조	3.733333
25	제약.바이오	3.357143
26	지주회사.본부	4.363636
27	화학	3.869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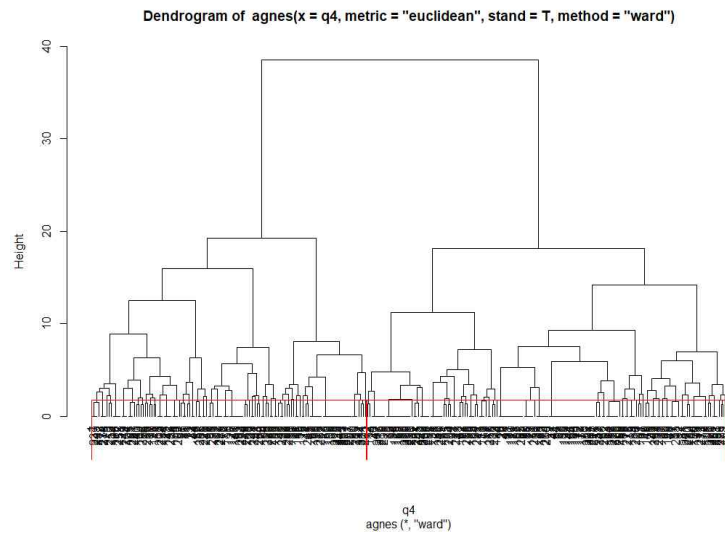
<부록 11> 산업별 <문항 3-1 S> 응답 평균

industry	q3_1_G
1	IT·통신 3.111111
2	건설 3.000000
3	광고 2.500000
4	그 외 기타 2.200000
5	금속·비금속 2.571429
6	금융 3.619048
7	기계·장비 2.764706
8	기관·단체 4.000000
9	농림수산 3.000000
10	미디어 2.800000
11	부동산 2.833333
12	상하수·환경 4.000000
13	생활·여가서비스 2.714286
14	설계·엔지니어링 3.666667
15	소비재 제조·판매 3.000000
16	여객·운송·물류 2.916667
17	연구·조사 3.000000
18	유통·판매 3.111111
19	자동차·조선·철도·항공 2.666667
20	자문 2.200000
21	전기 장비·제품 3.500000
22	전력·연료 2.800000
23	전문서비스 2.846154
24	전자·통신 제조 3.200000
25	제약·바이오 3.428571
26	지주회사·본부 4.090909
27	화학 2.739130

<부록 12> 산업별 <문항 3-1 G> 응답 평균

industry	q3_1_S
1	IT·통신 3.305556
2	건설 2.714286
3	광고 4.000000
4	그 외 기타 2.800000
5	금속·비금속 2.571429
6	금융 3.857143
7	기계·장비 3.470588
8	기관·단체 3.333333
9	농림수산 3.000000
10	미디어 3.000000
11	부동산 3.083333
12	상하수·환경 4.000000
13	생활·여가서비스 3.000000
14	설계·엔지니어링 3.666667
15	소비재 제조·판매 3.363636
16	여객·운송·물류 3.333333
17	연구·조사 2.000000
18	유통·판매 3.555556
19	자동차·조선·철도·항공 3.400000
20	자문 3.200000
21	전기 장비·제품 4.000000
22	전력·연료 4.200000
23	전문서비스 3.000000
24	전자·통신 제조 3.800000
25	제약·바이오 3.071429
26	지주회사·본부 4.363636
27	화학 3.304348

<부록 13> <문항 0-1>, <문항 0-3>, <문항 0-4>, <문항 0-5>의  
 군집화 및 군집별 평균



clusterN1	q0_1	q0_3	q0_4ESG	q0_5
1	2.584615	3.146154	2.376923	2.238462
2	3.605882	4.429412	3.347059	3.600000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